

# 雲門

불기 2564년

/ 가을호

통권 제153호

雲門寺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화엄이 되어보니 도반이 전부입니다. / 대교과 수진
- ❖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은 요즘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가장 행복한 수행자가 되시기를… / 대교과 정현
- ❖ 가을들판에서 땅을 향해 노란 물결 이룬 벼들처럼, 저도 하심下心하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발원합니다. / 사교과 해주
- ❖ 가을은 오백나한님, 제대성중과 함께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사교과 진정
- ❖ 가을 햇살에 비취진 운문사 노란 은행나무 잎 빛깔처럼 내 안의 불성을 밝혀 정성된 마음으로 운문사 대종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가을철이길 발원해요 / 사교과 지혜
- ❖ 결실의 계절. 우리 마음속 열매도 무르익어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 사집과 영인
- ❖ 꽃무릇 따라, 솔바람길 따라, 대중스님 따라 아름다운 가을 운문인을 느끼네 / 사집과 도현
- ❖ 도량에 쌓인 낙엽 쓸어내며, 내 마음 번뇌망상도 쓸어내자. / 사집과 효민
- ❖ 가을이라 하늘이 청정합니다. 구름을 벗어난 가을의 하늘처럼 우리의 자성도 번뇌를 벗어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사미니과 천진
- ❖ 깊어가는 가을처럼 초심자의 마음가짐도 깊어졌으면… / 사미니과 이재
- ❖ 뾰족한 껍질이 반 쯤 벗어진 밤 한 틀. 나도 모르게 입으로 가져가다 문득 드는 생각, 먹지 말고 담쥐에게 양보해야지. 읊긋불긋 잎 사이로 보이는 붉은 감. 나도 모르게 입으로 가져가다 문득 드는 생각, 먹지 말고 까치에게 양보해야지 / 사미니과 서우

# 雲門

## 목차

- |               |   |
|---------------|---|
| 02 호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죽림현        | 몸은 마음의 스승이다 명성                            |
| 06 특별논단       | 화엄십지설華嚴十地說 연구 ② 명성                        |
| 11 풍경소리       | 마음등불 정연下                                  |
| 12 교수논단       | 향가를 통해 본 화랑 ③ 영덕                          |
| 17 想          | 끽다거喫茶去 현지                                 |
| 18 선배탐방       | 불학연구소를 다녀오며<br>– 제25회 졸업생 정운 스님 탐방기 – 편집부 |
| 22 차례법문       | 수행 범용                                     |
| 24 외부기고       | 한 걸음, 더 넓고 큰 포교의 길로… 세광                   |
| 28 자유기고 1     | 오백 분의 아라한, 그리고 별들이 들려준 이야기 진정             |
| 30 학인논단       | 현행 『천수경』의 원류를 찾아서 정연上                     |
| 34 운문, 운문인    | 풍성한 계절, 풍요로운 마음 편집부                       |
| 36 수행의 두레박 하나 | 코로나19를 통한 수행자로서의 나의 길 현오                  |
| 38 수행의 두레박 둘  | 부처를 가리는 집, 금당金堂에 앉아 혜광                    |
| 40 수행의 두레박 셋  | 이제, 다시 태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법운                   |
| 42 자유기고 2     |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그리고 ‘울림’ 무공                 |
| 46 기획기고       |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우리들,<br>우리의 원력으로 열어가는 미래 여목   |
| 50 이 한 권의 책   | 『허공에는 자취가 남지 않아요』를 읽고 영운                  |
| 52 운문논평       | 귀를 기울이다 편집부                               |
| 54 운문소식       |   |
| 55 등불         | 포대화상 편집부                                  |



## 몸은 마음의 스승이다

명성 / 윤문사 회주



‘세상에서 비스듬이 드러눕거나 비뚜루 서고, 상소리를 내뱉으며 어지러운 것을 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유배지로 찾아온 장남 학연이 옷깃을 헤치고서 앓는 자세도 단정치 못한 것을 보고, 다산 정약용이 서신을 통해 아들을 훈계한 말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안을 돌이켜 보고 살핀다는 반관反觀의 풍조가 유행하면서, 외형은 가식이라 지탄하며 멋대로 행동하던 일이 많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외양보다 마음을 살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불교만한 가르침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는 삼천위의三千威儀와 팔만세행八萬細行이라는 세간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몸을 단속하는 규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은 몸과 동떨어져 따로이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께서 말하기를 ‘마음은 몸의 주인이지만, 몸은 마음의 스승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형직영단形直影端, 형상이 곧으면 그림자는 단정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백년쯤 지나, 당시 인도의 대스승이었던 우바굽타 존자는 부처님을 직접 친견했다는 120세의 비구니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자를 보내어 부처님의 용모와 위의를 묻기 위해 존자가 방문하리라는 것을 알렸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비구니는 참기름을 발우에 가득 담아 문지방 아래 놓고 기다렸습니다. 우바굽타는 들어오다가 문지방의 참기름을 밀쳐서 약간 쏟아뜨렸습니다. 우바굽타는 비구니에게 부처님의 용모와 위의, 그리고 부처님 당시 비구의 위의와 예법은 어떠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구니가 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에 육군비구六群比丘는 수치심이 없고 사악했지만, 위의의 법은 오늘 당신보다 월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비구는 문으로 들어오면서 기름을 쏟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사악했지만 비구의 예법을 알아서 행주좌와에 예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록 육신통을 얻은 아라한이라고는 하지만 그들만 못합니다.”

용수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몸가짐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 육신통을 얻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잔소리쟁이가 사라졌다!’라고 환호했다는 말난타 비구가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다면 아마도 그런 푸념을 늘어놓을 학인스님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가을 풍광 속에서 들썩이는 몸과 마음을 아직은 단속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순간순간,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인 자신의 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

## 화엄십지설華嚴十地說 연구 ②

명성 / 운문사 회주

1. 서언
2. 본경本經의 종취宗趣
3. 본경의 번역 및 조직
4. 십지十地
  - (1) 환희지歡喜地 (2) 이구지離垢地 (3) 발광지發光地 (4) 염혜지焰慧地
  - (5) 난승지難勝地 (6) 현전지現前地 (7) 원행지遠行地 (8) 부동지不動地
  - (9) 선혜지善慧地 (10) 법운지法雲地
5. 결어

### (3) 발광지發光地

또한 명지明地, 유광지有光地, 명혜지明慧地, 광명지光明地 등이라고도 한다. 수혹修惑을 끊고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이다. 「용수는 중생을 위하여 법法을 잘 설해서 밝게 비추기 때문에 명지라고 한다」<sup>9)</sup>고 하였다. 이 지地에 이르러 수승한 정을 얻음으로써 문사수聞思修의 삼혜三慧를 발해서 밝게 중생을 비추어 이의하게 하므로 발광지라 이름한 것이다. 이 지의 보살은 정심淨心 등 십종심십十種深心을 수련하여 세계의 실상을 무상無常, 고 苦, 무아無我, 부정不淨이라 관찰하고 그 실성實性이 마치 환화幻化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체 유위법有爲法을 여의고 불지혜佛智慧에 나아간다.

이와 같이 제3의 발광지發光地는 제2지로부터 보살행을 수련하는 동안에 그 행이 보살 자신의 몸에 배이게 되어 자기 속에서 지혜의 광명을 발휘하

는 경지를 말한다.

### (4) 염혜지焰慧地

또한 염지焰地, 중요지增曜地, 소연지燒燃地 등이라고도 한다. 수혹修惑을 끊고 지혜가 더욱 치성하는 지위이다. 용수는 「보시布施, 지계持戒, 다문多聞이 더욱 중장해서 위덕이 치성하므로 염지焰地라고 한다」<sup>10)</sup>고 하였다. 즉 보리菩提의 혜염慧焰이 점점 치성해서 번뇌를 태우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이 지地에서 관찰중생계觀察衆生界 등 십법명문十法明門으로서 중생계를 관찰하여 심불퇴전心不退轉 등 십종지十種智를 얻는다 하였다. 이 지의 행법行法은 아함의 조도품助道品으로서 정리된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등<sup>11)</sup>의 요항要項을 특색으로 하기는 하나 경경에는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의 명칭이 나타나 있지 않다. 보살은 이 지에서 더욱

더 자기의 인격을 연마하기 위하여 신信, 근勤, 염念, 정定, 혜慧의 오력五力과 팔정도八正道<sup>12)</sup>를 닦는다. 이리하여 제4지에서 자기 인격의 연마에 철저한 노력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 (5) 난승지難勝地

승혜지勝慧地, 극난승지極難勝地라고도 한다. 수혹을 끊고 진지와 속지를 조화하는 지위이다. 용수는 「공덕력이 치성해서 일체 모든 마魔가 무너뜨리지 못하므로 난승難勝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천친天親의 견해에 의하면 「출세간평등지出世間平等智를 얻은 후 속제차별지俗諦差別智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능히 이것을 하므로 난승이라 한다」<sup>13)</sup>고 하였다. 제4지에서 인격을 철저히 연마한 보살은 다시 다음 경지에 나아가기 위하여 과거불법평등過去佛法平等 등 십평등심十平等心을 행하여 고집멸도苦集滅道 등 사성제의 이치를 관한다. 이리하여 사제四諦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현실세계란 헛되고 덧없는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고해중생을 내가 아니면 제도할 수 없다는 결의에서 복혜福慧를 수습하고, 그 수습한 복혜의 자격으로 이를 중생을 펼경정畢竟淨에 안주케 하며, 내지 일체법 중에 무애지력無礙智力을 얻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난승지의 경지

이다.

### (6) 현전지現前地

또한 법현지法現地라고도 한다. 수혹을 끊고 최승지最勝地를 내어 무위진여無爲眞如의 모양이 나타나는 지위이다. 용수는 「마장魔障을 항복하고 이미 모든 보살의 도법道法이 모두 현전하므로 현전지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천친天親의 견해에 의하면 「이 지地에서는 만법연기萬法緣起의 유전상流轉상을 관찰하면서 무분별평등일지無分別平等一智를 얻어서 진여의 무염무정無染無淨을 깨달아 무상관無相觀을 현전케 하기 때문이다」<sup>14)</sup>라고 하였다. 제5난승지의 보살이 무성無性이기 때문에 일체법평등 등 십평등심十平等心을 수련해야 제6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6지에 이른 보살은 스스로의 지혜와 광명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지에 눈을 뜨게 된다.

「三界虛妄 但是一心作 十二因緣分是皆依心」<sup>15)</sup>

즉 삼계三界에 속하는 것은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에 의해 설해진 십이인연도 모두 마음에 의한 것이라고 관찰하기에 이르렀다. 이 육지六地에서 세간의 실상을 보게 될 때 마지막에 무애지無礙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현전지라 이름하는 까닭이다.

9)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9頁上 15行.

10)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9頁上 23行.

11)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 열반의 이상경에 나아가기 위하여 닦는 도행道行의 종류이니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각분七覺分, 팔정도분八正道分이다.

12) 팔정도八正道 : 불교의 실천수행하는 중요한 종목을 8종으로 나눈 것으로서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다.

13)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9頁中 8行.

14)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9頁中 18行.

15) 『빈기장경頻伽藏經』 「화엄부」 천팔天八, 二十二丁左 12行.

### (7) 원행지遠行地

또한 심원지深遠地, 신원지身遠地, 원달지遠達地, 심입지深入地 등이라고도 한다. 수혹을 끊고 대비심을 일으켜 이승의 깨달음을 초월하여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지위이다. 용수도 「삼계를 버리고 멀리 법왕위法王位에 가까워지므로 원행지遠行地라고 한다」고 하였고 천친天親은 「노력해서 무상관無相觀을 닦는 최후위에 속하며 세간의 이승을 멀리 여의고 제8의 청정지清淨地에 인접함을 원행지라」<sup>16)</sup>고 하였다. 제6지를 마친 보살이 7지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방편지혜方便智慧를 쓰아 ① 공空, 무상無相, 무원無願을 잘 닦아 자비심으로써 중생에 처하고 ② 제불의 평등법을 따라서 제불께 공양한다는 등의 십묘행十妙行을 일으킨다. 보살이 이 십묘행을 닦음에 따라 방편혜方便慧가 생기므로 7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지지의 보살은 특히 염념念佛 중에 십바라밀행十波羅蜜行<sup>17)</sup>을 구족히 닦는다. 다른 모든 지지에서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 7지지에서 설하는 이유는 이 원행지遠行地가 십바라밀十波羅蜜 등 조도법助道法이 가장 수승함은 물론 보살은 이 7지 중에서 일체행을 구족하여 지혜신통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8) 부동지不動地

또한 등각지等覺地라고도 한다. 수혹修惑을 끊고 이미 진여眞如를 얻었으므로 다시 동요하지 않는 지위이다. 즉 「천마天魔, 범梵, 사문沙門, 바리문婆羅門도 능히 그 원願을 동요하지 못하므로 부동지不

動地라 한다」고 용수는 보고 있다. 현수賢首는 부동不動의 견견에 삼의三義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이지地에 이르면 무공용無功用의 수행이 상속하여 유공용有功用의 행이 동하지 못하는 바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친의 해석이다. 둘째 무상정사유無相正思惟의 자재한 바는 모든 번뇌가 동할 수 없으므로 부동不動이라 하며, 셋째 무분별지無分別智가 마음대로 상속하는 상과 용은 어떠한 번뇌도 움직이게 할 수 없으므로 부동不動이라 한다.<sup>18)</sup> 초지初地에서 서원한 대원은 여기에서 결실을 맺어 이른바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어 무공용無功用의 자체인 본성本性에 눈뜨게 되어 제8지第八地에 들어가게 된다.

보살은 이 지지에서 십종十種의 자재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십바라밀十波羅蜜의 과보이다. 즉 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에 의하여 국토가 성취되고 원바라밀願波羅蜜에 의하여 자재를 얻고 역바라밀力波羅蜜은 무극無極이며 지바라밀智波羅蜜은 부동不動이며 불퇴전不退轉과 상응한다.

### (9) 선혜지善慧地

또한 혜광지慧光地, 선상지善相地 등이라고도 한다. 수혹을 끊고 부처님의 십력十力を 얻어 근기에 따라 교화의 가부를 알고 선교善巧로 설법하는 지위이다. 용수는 「그 혜慧가 더욱 밝게 조유중상調柔增上하기 때문에 선혜라 한다」고 하였다. 천친天親은 최승선묘最勝善妙한 무애해지無礙解智를 얻어 잘 이타행利他行을 하므로 선혜라 한다고 하였으니, 즉 법무애혜法無礙慧를 얻어 일체의 명구名句

16)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9頁下 4行.

17) 십바라밀행十波羅蜜行 : 바라밀은 度, 도피안到彼岸이라 번역.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 지혜바라밀智慧波羅蜜, 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 원바라밀願波羅蜜, 역바라밀力波羅蜜, 지바라밀智波羅蜜.

18)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9頁下 15行.

를 알아 법을 설하고, 의무애解義無礙解를 얻어 일체의 의리에 통하고, 사무애解詞無礙解를 얻어 일체의 언사言詞를 분별하고, 변무애解辨無礙解를 얻어 시방十方의 방언方言에 따라 자재하게 교화설법함을 말한다.<sup>19)</sup> 이 지지의 특색은 사무애지四無礙智로서 중생의 근기를 따라 설법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케 하는 것이다.

### (10) 법운지法雲地

또한 관정지灌頂地라고도 한다. 수혹을 끊고 무한한 공덕을 구족해서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을 행하여 대자운大慈雲이 되는 지위이다. 용수는 「시방무량세계에 능히 일시에 법우法雨를 내림이 마치 겁劫이 다하도록 널리 비를 퍼붓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현수는 여기에 삼의三義가 있다고 하였으니 첫째는 구름이 무량한 덕을 지니는 것과 같이 일체법을 반연하는 대법지大法智에 여러 가지 덕德이 있음을 말하며, 둘째는 대운이 허공을 덮는 것과 같이 일체법지一切法智는 번뇌와 소지의 이장二障을 덮기 때문에 법운法雲이라 한다. 셋째는 대운이 허공에 두루한 것과 같이 법신이 충만함을 비유해 말하였다. 천친이 대법신大法身을 얻어 자재를 구족하므로 관정위灌頂位에 해당된다고<sup>20)</sup> 한 것은 인도에서 제왕帝王이 즉위할 때 사대해수四大海水를 신왕新王의 머리에 봇는 의식을 말한 것인데, 여기서는 보살이 제10지에 오르려 할 때 무수한 부처님들이 지혜의 물을 그 이마에 부어 주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비유해서 이름한 것이다. 이 지지에 이르면 보살의 이상은 완전히 실현되고 그 활동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게 되는 것이다.

## 5. 결어

이상으로써 보살십지菩薩十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였거니와 이 십지의 행行에 대하여 경문은 다음과 같이 십바라밀행의 수행을 말하고 있다.

- 一. 歡喜地 修願…行菩薩以來佛道所修善根與一切衆生 是檀波羅蜜
- 二. 離垢地 戒行…能滅一切煩惱熱 是尸羅波羅蜜
- 三. 發光地 禪行…慈悲爲首於一切衆生心無所傷是羼提波羅蜜
- 四. 焰慧地 道品行…求善根無厭足 是毗梨耶波羅蜜
- 五. 難勝地 諦行…修道心不散常行一切智 是禪波羅蜜
- 六. 現前地 緣生行…忍諸法不生門 是般若波羅蜜
- 七. 遠行地 菩提分行…能起無量智門 是方便波羅蜜
- 八. 不動地 淨土行…求轉勝智慧 是願波羅蜜
- 九. 善慧地 說法行…諸魔外道不能沮壞 是力波羅蜜
- 十. 法雲地 受位行…於一切法相如實說 是智波羅蜜<sup>21)</sup>

곧 제1환희지第一歡喜地로부터 제10법운지第十法雲地에 이르는 10지의 각지에서 십바라밀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나 환희지에서는 특히 보시바라밀을 수승하게 닦고, 내지 법운지法雲地에서는 특히 지바라밀을 수승하게 닦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대한 것이다. 또 보살은 10지에서 십진여十眞如를 관하게

19)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10頁上 8行.

20) 『국역일체경석경론부』 6, 10頁上 22行.

21) 『축장縮藏』 8, 二十四下左 11行.

되는 바 즉 초환희지初歡喜地에서는 변행진여遍行眞如, 제2이구지第二離垢地에서는 최승진여最勝眞如, 제3발광지第三發光地에서는 승류진여勝流眞如, 제4염혜지第四焰慧地에서는 무섭수진여無攝受眞如, 제5난승지第五難勝地에서는 유무별진여類無別眞如, 제6현전지第六現前地에서는 무염정진여無染淨眞如, 제7원행지第七遠行地에서는 법무별진여法無別眞如, 제8부동지第八不動地에서는 부증감진여不增減眞如, 제9선헤지第九善慧地에서는 지자재소의진여智自在所依眞如, 제10법운지第十法雲地에서는 업자재등소의진여業自在等所依眞如를 중득한다고 하였다. 이 십진여의 중득은 경문에는 직접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문에 의해서 그 순서가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십지론석十地論釋에 의하여 이상에서 말한 십지도十地道를 고찰하면 그 기본사상은 초기로부터 3지에 이르는 도에서는 법을 발견하고 4지로부터 7지에 이르는 도에서는 인을 훈련하고, 8지로부터 10지에 이르는 도에서는 인법일여人法一如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화엄십지華嚴十地를 요약해서 말하면 초기에서는 십대원十大願, 2지에서는 십업도十業道, 3지에서는 무상無常 등, 4지에서는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5지에서는 사성제四聖諦, 6지에서는 십이지十二支<sup>22)</sup>, 7지에서는 십바라밀, 8지에서는 불퇴전不退轉, 9지에서는 사무애지四無礙智<sup>23)</sup> 10지에서는 최고법운지最高法雲地를 특색으로 하여 질서있게 얇은 데서부터 깊은 곳으로 조직되어 대승보살의 수행도에 적합한 십지를 확립하였다.

요컨대 이 10지는 대승보살이 자리이타로 불지佛智를 개현하려고 할 때의 실천과정과 그 내용을

십단十段으로 명시한 것으로써 이 십지행十地行은 보살의 발심으로부터 성도하기까지의 진전進展을 표현한 것이다. 인도의 용수, 천친을 비롯한 여러 논사들의 견해, 또는 『십지경十地經』이 별행別行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보살도의 기본사상은 십지행十地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 〈참고문헌〉

- 『불교유심론佛教唯心論』 촌상전정村上專精 저著
- 『화엄학개론 華嚴學概論』 김잉석金仍石 저著
-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실차난타實叉難陀 역譯
- 『불교학보佛教學報』 제이집第二輯 동국대학교 東國大學校 불교문화연구소佛教文化研究所

22) 십이지十二支 : 십이인연 또는 십이연기라고도 한다. 삼계三界에 대한 미묘의 인과因果를 12로 분류한 것. 무명無明, 행行, 식識, 명색名色, 육입六入, 죽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 生生, 노사老死.

23) 사무애지四無礙智 : 사무애변四無礙辨. 사무애해四無礙解라고도 함. 마음의 방면으로는 지혜, 해설라하고 입의 방면으로는 변이라 함.  
 ① 법무애지法無礙智 ② 의무애지義無礙智 ③ 사무애지辭無礙智 ④ 요설무애지樂說無礙智이다.

## 마음등불

정연下 / 사미니파

새벽녘 열린 대문! 호거산 운문사 사물과 함께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새벽예불.  
아름드리 늘어진 장대하고 푸른 사찰노송은 삶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고  
작은 가지마다 오는 이를 위해 초록 솔방울이 등불 되어 밝혀 줍니다.

운문사 곳곳마다 눈 맞추면 여기도 저기도 피어나는 자연스런 삶의 향기,  
문득 눈길 가는 곳에는 새롭고 새로운 모습들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불자들 마음에 어려움이 닥칠 때 곧장 신중님 되어 지켜 주신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사찰을 둘러보는 어른들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과  
아이들에게 불심佛心의 씨앗을 심어 주는 행복한 시간이 깃듭니다.  
어린이들 눈 맞춤은 신비함을 담고 자랍니다.

후박나무에 붉게 익어가는 씨앗, 범륜 수레바퀴, 끝없이 샘솟는 수파 감로수는  
회주스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학인들에게 씨앗 심어 주시는 어른 스님들의 명강의와,  
선배스님들의 발자취는 마음을 환희심으로 가득 채워 줍니다.

마음등불은 내 마음을 밝혀 주고 무명을 거두게 합니다.  
삶이 어둡고 지칠 때 눈을 감고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음속 부처님을 간절히 떠올리며  
운문사 청정도량에서 잠시나마 고요함을 찾습니다.

깊은 산중 돌고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흙과 땅방울이 벗이 되어 마음등불을 밝히니  
새벽녘에 열린 대문, 일체 중생 반기는 법향이어라.  
하루하루 정진하며 삼보님께 마음등불 밝힙니다. ☩

## 향가를 통해 본 화랑 -화랑정신의 본질과 시대적 의미- ③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 목 차

1. 들어가며
2. 绶歌 속의 화랑
3. 아름다운 인격, 화랑 三善行
4. 화랑정신의 본질
5. 화랑정신의 시대적 의미
6. 나가며

【참고문헌】

### 4. 화랑정신의 본질

#### - 지면 관계상 요약 -

세속오계는 원광법사가 600년(진평왕 22) 수나라에서 돌아와 雲門山 嘉瑟寺에 주석하고 있을 때

沙梁部의 貴山과 範項이 평생 의지할 가르침을 청하자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의 다섯 가지 계율을 내려 준 데서 비롯되었다. 원광의 가르침은 이후 하나의 이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불교의 색채만을 고집하지 않고 현실적 요구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속오계는 전통적 삶의 가치인 忠과 孝, 信의 이념 위에 불교의 摄善法戒와 摄律儀戒, 摄衆生戒를 모두 내포한 三聚淨戒를 바탕하여 菩薩戒 정신으로 확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출가주의에 탐착하지 않고 당시 신라의 세속적이고도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이러한 국가불교적 성격은 이후 한국불교를 일관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원광은 중국에 유학하여 대 소승에 두루 밝았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大乘菩薩道 실천을 선양하였다. 국왕으로부터 받는 利養을 개인적으로 쓰는 일 없이 모두 사찰경영에 충당하였고, 출가 사문으로서 본분을 엄격하게 지켜서 많은 道俗들의 존경을 받았다. 자신은 오직 衣鉢 하나만을 남길 뿐이었다. 한편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편도 버리지 않았으며 이타를 위주로 하는 대승보살도의 정신으로 교화에 진력하였다. 원광은 왕명에 의하여 乞師表文을 쓸 때에 보인 자세<sup>27)</sup>처럼, 사문의 한 사람으로서 엄격하게 자신을 단속하였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해야 하는 일을 확실하게 구별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세속오계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또한, 그의 권속 가운데 화랑이 많이 배출<sup>28)</sup>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화랑이라는 조직에 관한 개인적인 애정도 남달랐을 것이다. 비단 원광뿐만 아니라 신라는 명실상부한 불교국가로 승려들의 역

27) 608년에 왕이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대응하고자 수나라에 구원군을 요청하는 〈乞師表〉를 짓도록 하였다. 이때 “자신이 살려고 남을 해치는 일은 승려로서 할 바가 아니라, 제가 대왕의 땅에 살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어찌 김히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8) 『화랑세기』 이화랑조

할이 역동적이던 사회였다. 학문적 활동을 하는 지식인에서부터 정치적인 자문으로서 그리고 외국문물의 수입 등에도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당시의 승려들이 여러 방면에서 사회에 기여했다고 현대의史家들은 공통된 의견을 모은다. 그들은 특히 화랑국선에 대한 정신적 교육을 담당했었으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자문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상에 보인 역대 花郎과 僧侶郎徒	
25代 眞智王	未戶郎과 眞慈스님
26代 眞平王	好世郎과 惠宿스님
29대 太宗武烈王	文鷲郎과 轉密스님
32代 孝昭王	夫禮郎과 安常스님
35代 景德王	耆波郎과 忠談스님
47대 崇安王	膺廉郎(후에 경문왕)과 範教스님

위의 표에서 보이는『삼국유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花郎과 僧侶郎徒의 관계만으로도 화랑의 정신적 성숙과 각성에 역할을 했던 승려들은 상당했으리라 짐작된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들이었고, 집을 떠나 험준한 객지 생활을 하는 데에는 정신적 고충이 적지 않았을 터이므로. 그들에게 종교가 주는 위안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함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전장으로 투입되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았던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확고하게 사상이 정립된 정신적 존재가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세속오계의 특성상 불교가 화랑에 끼친 영향을 도덕적인 범위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미 고찰한 바처럼, 화랑의 예술로 불리는 향가의 창작자 대다 수가 승려였다는 점과 화랑의 교과목에 해당하는

‘도의’와 실천 덕목으로 주목받던 삼선행 정신이 불교의 근본적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당시 사회를 주도하던 6두품 이상의 계급에서 출가자가 많았던 점 등이 이를 입증한다. 어쩌면 원광 이후 당시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화랑정신의 본질적인 부분은 대승불교의 보살이 추구하는 慈悲喜捨나 自利利他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에서도 확인되는 바, 고대 사회로 갈수록 한 사회의 종교 문화적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뿐만 내리기도 쉽지 않지만 뿐만 뽑기는 더욱 어렵다. 더구나 그것이 궁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라면 말할 나위조차 없다. 원광의 계율 정신을 이어서 신라에 널리 계법을 퍼서 僧尼의 규율을 바로잡고 설계를 행하며 최초로 계단을 세워 사방에서 오는 승니에게 여법한 수계를 하는 등 율의계의 정비와 정착에 큰 공을 이룬 이는 慈藏이다. 그들은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에 뜻을 두었다.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써 계율에 의한 교화에 기본을 두고 대승보살도에 의한 교화를 넓혔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승되는 한국불교 계율전통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신라인들도 대사회적 윤리를 불교 안에서 찾으려 하였고, 올바른 국가관도 불교 교리에서 발견하려는 국가적 목적이 뚜렷하였다.

화랑도 정신을 현대 교육의 이상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유능한 국민이며 지도자가 될 사람을 기르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선량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기르려는 데 목표가 있으므로 오늘날 교육에서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목적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화랑도의 도덕교육의 구체적인 지침도 세속오계와 삼미의 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광이 화랑에게 남긴 교훈인 세속오계는 정신적 기반이며 실천덕목이라 하겠다. 화랑오계의 각 덕

29) 김진숙, 「화랑정신과 교수법」, 『우리정신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상)』, p. 16.

목이 갖는 적극적 가치를 현대교육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화랑오계는 忠, 孝, 信, 勇, 寛의 다섯 덕목으로 함축시킬 수 있다. 첫째, 충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세, 즉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질을 의미하고 이에는 의무감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효는 인간성 문제로서 인간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적극적 가치에는 덕성 함양, 예의, 복종과 순종, 공경심 존경 등이 있으며, 셋째, 신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요, 사회존립의 기본원리로서 이에는 협동정신, 책임감, 협조성, 신의에 의한 상호신뢰 등의 가치가 요구되며, 넷째, 용은 인격의 핵심적 요소로서 용감성, 봉사, 희생정신, 자기통제력 등의 가치가 요구되고, 다섯째, 관은 원만한 사회적 성격으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 가치는 합리적 정신, 양보, 겸양, 관용, 준법정신, 선악의 가치판단력, 질서, 공명정대의 정신 등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화랑오계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武士의 요소를 뜻하였으나, 그에 함의된 적극적 가치로서는 덕성, 협동심, 정의, 합리성, 겸양 등의 초시간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 현대교육의 전인교육으로서의 제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속오계의 충, 효, 신, 용, 관의 다섯 가지 덕목은 화랑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가정에서의 효제, 단체에서의 신의, 사물에 대한 정대한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이를 이상적인 생활신조로 삼았던 것이다(이광구, 1996).

## 5. 화랑정신의 시대적 의미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화랑정

신의 시대적 의미를 돌아본다. 공자孔子는 ‘윗자리는 있으면서 아래사람과 동기들에게 박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지도자의 역할은 후덕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행하면서도 공경스럽지 못하고 초상에 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 자라면 관찰할 가치가 없는 자’라는 말은 결국 치세를 위한 일시적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본성에서 발원하는 진정성에 방점을 찍는다. 『도덕경』과 『논어』의 구절이 화랑의 삼미와 관계를 맺으면 다음의 조건들이 형성된다.

- ① 성인들의 이러한 경책을 몸소 체달하여,
- ②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언행일치가 증명된 사람이라야
- ③ 자타가 겸증한 인격자로서 세상에 나설 자격이 있다.

혹자는 이런 의구심을 낼 수도 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을 찾아 천거하는 제도를 타박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인재를 만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건 아닌가.’ 이를테면, 탁월한 인재를 알아보고 그의 성품에 매료되어 찬탁의 눈물과 함께 부마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신라의 제48대 경문왕(김옹렴)의 일화는 상식적으로는 이례적인 상황이며, 이 또한 지배계층끼리 전승되는 권력 이양이어서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볼 수 있다.

화랑정신이 드러난 또 하나의 예가 ‘壬申誓記石’이다.<sup>30)</sup> 다음은 임신서기석에 관한 분석을 도표로 만들어 분석해 보았다.

이 비석을 통해 신라 청소년들이 지녔던 이상

30) 비석 첫머리에 ‘임신壬申’이라는 간지가 새겨져 있고 내용에 충성을 서약하는 글귀가 있어 ‘임신서기석壬申誓記銘石’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壬申이라는 간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①화랑도가 융성했던 진흥왕대에서 문무왕의 신라 통일 이전에 해당하는 552년(진흥왕 13) 또는 612년(진평왕 34)의 임신년으로 보기도 한다. ②신라 통일 이후 『시경』, 『상서』, 『예기』 등을 주요과목으로 선택한 신라 국학이 설립된 682년(신문왕 2) 이후의 임신년이나, 732년(성덕왕 31)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주로 한국학자들의 주장이고 후자는 일본학자들의 견해다. 현재 역사학계는 전자를 더 타당하다고 본다.

원문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 誓之 又別先辛未年 七月廿二日 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내용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서약하고 적어서 하늘을 두고 맹서하노라. 지금부터 3년 이후 (까지)충도를 지키고 고사실이 없기를 비노라.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늘에 큰 죄를 짓게 됨을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난세가 되더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행할 것을 서약한다. 또 특별히 앞서 신미년辛未年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으니 詩經 · 尚書 · 禮記 · 傳을 차례로 배워 익혀 3년 안에 다 배우기를 다짐한다.”		
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청년, 15~30세 사이, 이는 학문을 익혀 국학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로 볼 수 있다.		
언제	임신년 6월 16일 (진홍왕 13년 552/ 진평왕 34년 612/ 문무왕 12년 672/ 732)		
어디서	1934년 경주시 현곡면見谷面 금장리 錫杖寺 부근에서 발견된 비석. 현 경주 동대 경내 소장		
무엇을	하늘 앞에 맹세한 내용을 기록. 일곱 번의 ‘誓’가 나옴.		
어떻게	1. 지금부터 3년 동안 충성과 도의를 행할 것을 맹세 2. 나라가 불안하고 어지러워져도 반드시 약속을 행할 것을 맹세 3. 나라가 편안할 때는 시경 · 상서 · 예기 · 전을 습득하기를 맹세		
상황	정치적 · 사회적 측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지 532 금관기아 <sup>1</sup> 항복, 553한강점령 554 관산성전투, 559 가야지역 정벌시작, 대가야 점령. 이사부+사다함 590 한강이북 수복노력(온달장군 전사) 598 오서지방 선제공격 608 원광 결사표, 수나라→고구려(견제) 공격요청 612 살수대첩	642 대야성 전투 643 려제연합, 김춘추 지원군 요청 고구려(구금) ⇨ 당나라 645, 안시성 전투, 647비담염종 난 648 나·당 연합결성, 660 황산별전투 ⇨ 백제 멸망, 668 고구려 멸망, 안동도호부, 670 나당전쟁 시작, 671웅진도독부, 675 매소성전투, 676 기벌포 전투, 676 삼국통일, 681 김흠들 모반사건
	경제적 측면	6두품 자제로 추측, 3년간 글만 읽어도 되는 안정된 가업	
	교육적 측면	交友以信의 단편을 엿볼 수 있다. 『대학』 → 『중庸』 → 『맹자』 → 『논어』 → 『시경』 → 『서경』 → 『주역』의 차례로 공부하는 과정. 648 김춘추가 唐 국학건학, 651진덕여왕 집사부 설치, 卿 설치, 681 신문왕 국학설치 682 국학 卿설치, 747 경덕왕 태학감, 776혜공왕 다시 국학, 788년 원성왕 독서삼품과, 국학 교과목; 논어 효경 예기 주역 상서 모시 춘추좌씨전 문선. 젊은이들의 목적 국학 졸업 시 奈麻 <sup>31)</sup> 대마나 제수. 인재등용의 관문, 6두품 출신 자제 중심.	
	종교적 측면	두 번에 걸쳐 나오는 ‘하늘’이란 어떤 하늘을 말하는가. 즉, 토착종교인 천신사상에 근원. 『삼국유사』의 <고조선>편 참고.	
	인간적 측면	私的인 일보다 公의 우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우국충정의 자세와 기상, 독서와 습득, 사유를 추구하는 건전한 청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신라 청년을 통해서 그들의 때문지 않은 인성과 仁義禮知信의 정서, 인내력과 지구력, 내외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강한 성취동기와 포부 염원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과 포부, 염원을 엿볼 수 있다, 花郎徒가 ‘盡忠報國’을 실천 덕목으로 삼았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비석에서 忠道의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두 청소년은 화랑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기록된 임신년壬申年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화랑도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진홍왕 13년(552)이나 진평왕 34년(612) 중 어느 한 해일 것으로 추정<sup>32)</sup>하는 설이 있다. 모두 74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비문의 내용이 ‘憂國衷情’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맹세하고 서로 다짐하는 자세가 엄숙하여 화랑의 기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sup>33)</sup> 당시 청소년들이 어떻게 벗을 사귀고, 벗과 더불어 무엇을 공부했으며, 어떤 대화를 공유하였는지 또 정치 사회적 정황과 교육적 수준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세속오계에 바탕을 둔 화랑도 정신은 국민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기반이 된 것으로, 청소년 집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치일선이나 국방의 전략적 기지 건설 등 실천적인 국민정신으로 발전하였고, 궁극에는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聖人們로부터 우리가 부축 받아야 할 바가 자비심과 仁義 그리고 겸손과 용기임을 배우고 국토 수호에 우뚝 설만한 수준에 이를 제2 제3의 무수한 화랑이 존재하던 시절이 바로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그 울림은 더 이상 옛사람의 것이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새로운 목소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6. 나가며

오늘날 우리가 대면한 현실은 모든 면에서 革命的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세상이다. 4차산업의 超連結社會의 현실은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현실이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윤리적 토대가 요구된다. 불교의 緣起空性은 여기에 친화력을 가지며 새로운 세기의 윤리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건전한 청장년의 기품을 진작시키고 국제화 사회에서 나라를 빛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랑도에 관한 관심이 높다.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닌 화랑정신을 통해 개인적 성취와 국가 장래를 이끌어갈 동량을 양성하고 세계 속에서 당당한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유사三國遺事』
- ・『精選 戒律』, 원철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2010.
-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2013.
- ・『우리정신문화 교육 전문인력양성과정』 上 下, 대구한의대인성교육센터, 2016.
- ・『화랑 세속오계의 현대적 해석』 1 2,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2013-2014.
- ・나경수, 『향가의 해부』, 민속원, 2005.
- ・신재홍, 『향가의 연구』, 집문당, 2017.
- ・안호상,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열』, 1977.
- ・홍기문, 『향가의 해석』, 여강출판사, 1990.
- ・이능화 이종은 역,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 보성문화사, 1986.
- ・김정, 「화랑도(花郎道)와 세속오계(世俗五戒)」 『정신문화연구』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김정, 「화랑도(花郎道)의 사상적(思想的) 연원(淵源)에 관한 소고(小考)」 『동방사상논고』, 도원유승국박사화갑기념론총간행위원회, 종로서적), 1983.
- ・원홍규 김진만, 「화랑 세속오계의 현대적 리더십 반영에 관한 일고」, 『대한정치학회보』, 2016.
- ・조남숙, 「신라 화랑도 관점에서 본 김옹렬의 화랑정신」, 『도덕윤리과교육』, 2016.
- ・智冠편저, 『伽山大辭林』,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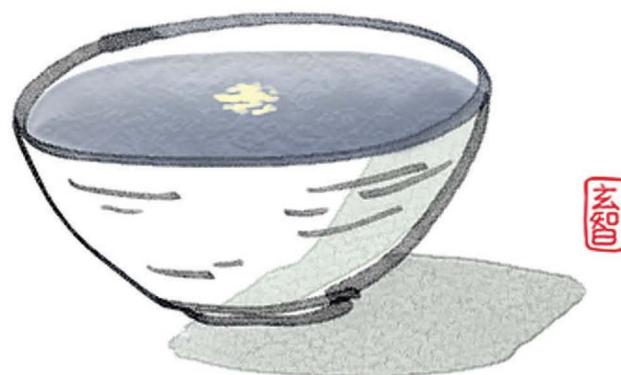
31) 신라 17관등 가운데 11번째 관직.

32) 국학의 교과목 시경·상서·예기·전을 습득하기를 맹세한 것으로 보아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의 '국학'을 견학한 이후, 651년 진덕여왕이 집사부와 卿을 설치, 681년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하는 과정 중인 672년 문무왕 12년 임신년, 나당전쟁으로 인한 전쟁의 위기상황 등으로 보아 672년 설이 유력하지 않을까 유추해 보는 바이다.

33) 박영호, 「고전에 기록된 화랑 관련 기록 살피기」, 『우리정신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下)』, pp. 5~6.

喫茶去

현지 / 사집과



## 불학연구소를 다녀오며

- 제25회 졸업생 정운 스님 탐방기-

편집부

8월 14일, 탐방팀은 사중에서 마련해 주신 차편으로 무사히 조계사 앞에 도착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운문사 도량의 모래흙과 나무 마루를 밟던 발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절감이 다른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니 그 느낌이 매우 생경했다.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여러 모로 어느 먼 시대로부터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온 옛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였을까?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 앞에 서니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반갑기 그지없었다.

대웅전 참배를 마친 후 우리는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 문화박물관으로 향했다.

새 건물 특유의 반짝거림에 두리번거리며 계단과 복도를 따라가니 불학연구소라는 표가 달린 사무실이 나왔다. 25회 선배스님인 정운 스님이 불학연구소장으로 근무하시는 곳이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고 그런 자리 아니니까 편안하게 차 한 잔 하세요.”

선배님은 경쾌하게 차를 우려 내셨다. 도량은 그곳에 현재해 있는 사람이 순간순간 건립하는 것이어서일까? 차향기가 우리나라 일반 사무실과 비슷한 선배님의 집무실은 어느새 산중의 산방으로 변하고 있었다.

흙과 돌, 나무와 종이로 이루어진 공간에 익숙해 있던 산골의 학인들에게 그것은 더 없는 환대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특별히 글을 잘 썼거나 강원 다닐 때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논문 쓰고 강의 한 것들이 자료로 모이다 보니 인연이 그렇게 되었어요.”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학위,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 강의,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 아사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소장, 불교도서 베스트셀러 저자 등등.

지면에 소개되는 공식적인 이력들이 주는 무게감을 벗어난 소탈함과 담백함 또한 예상치 못한 환대였다.

“다만 어려서부터 책보는 일은 좋아했어요. 20살에 출가할 때도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 애지중지 보던 책을 들고 출가했어요. 스님이 되면 시원한 정자 바람 쐬면서 느긋하게 책만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출가하고 보니 종일 일만 있는 거예요. 밤새 촛불 켜놓고 책보다 은사스님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이런 열정은 후에 글을 집필하는 열정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동안 쓰신 책들 가운데 특히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경전숲길』 같은 경우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핵심경전 19권이 담겨 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라 책을 완간하는데 2년 가까이 걸렸다고 한다.

“눈에 실핏줄이 몇 번 더지면서 했는데 그러면서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최근 발간하신 『인물로 보는 선사상사』에도 그런 열정이 곳곳에 보인다.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료조사를 하고 사진에 담는 등 직접 발로 뛰면서 글을 쓰셨다.

“자료가 없을 때는 직접 해당 장소로 가요. 가서 직접 보면서 하니까 터득하고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왜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글줄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



면서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운문사 회주스님 공양 덕분이에요. 책도 나오기 전에 스님이 책 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그 어른 덕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책 집필 외에도 가벼운 에세이로 교차로에 글도 싣고 계신다. 벌써 8~9년째다. 주변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일들을 불교와 연관지어 쓰다 보니 원고 자료를 위해 주말에는 TV를 자주 보신다고 한다. 종교보다는 현실적 생계가 더 급한 이들이 찾는 신문에 오랜 세월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며 글을 써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글로 불법을 펴고자 하는 원력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 짐작된다.

스님은 집필 활동 외에도 다양한 강의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학 강의만 해도 벌써 19년째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과 철학 또한 남달랐다.



“동국대의 경우, ‘자아 명상’이라는 수업을 17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일반학생들에게는 절대 화를 내거나 말도 함부로 안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모르는 일반학생들에게 나라는 존재 즉, 이 스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중에 10년 뒤의 불교예요. 학생들은 제 얼굴과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자신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스님이라는 것은 기억할거예요. 그 학생들에게는 그때 내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이 곧 불교에 대한 기억일거예요. 불교를 모르는 일반 학생들에게 나에 대한 기억이 곧 불교에 대한 기억인 거죠.

그와 달리 전공수업 때는 불교 경전 내용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가를 중시해요. 학생들에게 팀으로 발표를 시키는데 사회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여성 차별문제나 노동자 문제, 인종 차별 등의 인권 문제들을 불성사상과 연관시켜 발표를 시켜요. 불교를 현대적으로 변용할 수 있는 관점과 힘을 길러 전공자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려 해요.”

불교의 현대적 응용보다는 전통에 더 가치를 두는 전통강원 체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인스님들에게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했다. 강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후배들을 위해 한 마디 조언을 부탁드렸다.

“강원 졸업 후 26살에 선방을 갔어요. 그런데 한두 철을 나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학교공부 하면서 이 길로만 왔어요. 하지만 그때를 지금도 잊지는 않죠.

요즘은 출가가 늦어지는 시대라 강원 졸업하고 바로 포교나 사찰 운영 같은 걸 하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남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이 먼저 공부가 되어야 해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강원 졸업 후 적어도 10년은 선방을 다녀서 자신의 공부가 된 후에 포교든 사찰 운영이든 해야 해요.

우리 불교가 2600년 동안 흘러온 것은 수행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구마라집이나 용수보살 같은 이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 수행했든 이번 생에 수행을 했든 뛰어난 근기와 수행의 경지에서 흘러나온 말들을 오늘날 우리가 학문으로 보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교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불교가 2600여 년 동안 흘러오면서 나온 수많은 수행자들에 의한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공부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대학원 가려는 학생들 보면 저는 항상 물어봐요. 정말 대학원 가서 학문을 하고 싶은 거냐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논문이든 공부든 하고 싶은 바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학자적 위치에 들어서려면 석·박사하고 나서도 그 분야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해요. 선방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한 길은 꾸준히 10년은 가야 해요.”

교학자로 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분이 전하는 수행에 대한 강조는 더 깊은 울림과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10년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강조 또한 미리 앞길을 걸어가 본 선배만이 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격려이자, 산중이 아닌 벌딩숲 사무실에서도 산방의 차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내공의 소유자만이 해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조언이었다.

스님과 말씀을 나누는 사이 서로 낮이 설은 선후배라는 시간의 상이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운문사라는 공통의 공간적 경험과 부처님 제자라는 공통의 연대감이 피어났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다. ●



## 수행

법음 / 사교반

능엄경에 나오는 칠처징심에는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7가지 장소에 관해 부처님과 주고받은 문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칠처징심 자체는 굉장히 희론적 인데 마음이라는 것을 대상화해서 거기에 끊임없이 언어와 의미를 부여하며 분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등 모든 희론을 따라가다 보면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럼 경전은 왜 이런 희론으로 많은 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 사이의 현실적 간격 때문인데, 질문하는 자는 생멸의 세계에 사는 중생의 관점에서 중생의 언어와 논리를 이용해 질문하고 있고, 부처님이 답하고자 하는 마음, 즉 상주진심이라는 것은, 모든 언어와 논리를 여원 그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언어와 논리가 동원되어 답이 제시되다 보니 자칫 미궁으로 빠지는 인상이 들기도 하고, 분별과 언어, 논리를 통한 이해를 실상에 대한 참된 이해로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계를 보완해 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그것을 수행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대중스님은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수행이고 수행 아닌 것이 없다지만 분명한 건 어떤 것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행자 시절, 습의사스님은 반야심경 정도는 보살님들도 외우는 건데 어떻게 그거 하나 모르고 출가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낯선 용어와 한문에 져 역시 걱정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 익히게 되고 지금은 경반이 되어 미숙하나마 경도 읽고, 낯설던 예불, 발우도 일상이 되었으니 정말 일취월장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제가 수행자로서 조금이나마 진일보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언어적, 교리적, 관습적 이해와 훈련이 마음이라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체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저는 잠시 시공간을 이동해 여기서 멀지 않은 며칠 전의 후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날 저는 별좌냉장고에 갇혀 잠시 생과 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스님들이 놀라실까봐 이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냉장고에는 안에서 열고 나올 수 있는 손잡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잡긴다, 밖에서 잡근다는 개념이 소용없는 안전한 문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극적 전개를 위해 주인공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야 합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별좌스님, 별좌스님’. 콩콩콩. 사실 이런 조용한 어조는 아니었고 제 평생 내 보지 못한 어떤 소리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냉장고는 평음을 내며 희뿌연 냉기를 뿐었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아니 절박이라는 말은 그 순간을 표현하기에는 좀 느슨한 단어지요. 아무튼, 저는 별좌스님이 멀리 가기 전에 저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날이 선 절박감에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며 별좌스님을 외쳤습니다.

사실 저는 생사는 둘이 아니라는 말을 알며, 죽음에 대한 여러 의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을 배우고 조사의 말을 배우며 생사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이라는 그 절박의 경계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도 능엄주의 한 음도 제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원초적인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만이 뱀처럼 끼리를 틀고 생생히 살아 또렷또렷했습니다. 또 평소에 죽음의 지난한 과정, 즉 늙고 병들어 혼자 운신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지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고 말했지만, 열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의 경계에서 저는 죽음 자체에 별별 떨었습니다.

결국, 저는 머리를 깎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단 일 밀리도 흐름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완벽히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러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전도망상 속에 산 걸 생각하니 은산철벽에 가로막힌 듯 막막했습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껌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해 주듯 아난존자가 체루비읍하며 부처님께 말합니다.  
‘비록 다문했다 하더라도 만약 수행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는 마침내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의 기억에 여전히 안으로 체루비읍 중입니다. 그동안의 관성을 멈추고 그저 주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머리로 아는 것과 수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반성이 깊어질수록 좀더 천천히 걷고, 좀더 신중히 먹고, 좀더 자주 법당에 가서 몸을 숙이려 합니다. 아직은 그뿐입니다.

이상으로 차례법문을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 



## 한 걸음, 더 넓고 큰 포교의 길로…

세광 / 숙명여자대학교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저는 올해 3월부터 숙명여대 지도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대학의 개강 날짜가 미뤄짐에 따라 개강법회 또한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리 회장법우의 온라인 법회 요청으로 4월 1일 저의 첫 법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법회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학 중인 동국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보니 교수님들께서 수업시간에 종종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시고 보는 저도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법회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제 모습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쑥스러운 마음에 설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제공\_불교신문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이제 강원을 졸업해서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에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법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법회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숙명여대 법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오히려 법회로 인해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숙명여대 온라인 법회는 처음 제가 대면 법회를 생각하고 준비했던 ‘삼귀의, 반야심경-명상-법문-생각하기-발원문’의 순서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 법사님들께서도 온라인 법회를 시작하실 때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법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법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면 법회나 온라인 법회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먼저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이 됩니다.

법회시간이 되면 ‘ZOOM’ 미팅룸 링크를 통해 법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회의 시작에 하는 삼귀의 반야심경은 대면 법회라면 목탁을 치면서 했겠지만 ‘ZOOM’의 화면공유기능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틀어 진행합니다.

이어지는 짧은 명상시간에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화면으로 보이는 법우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법문도 마찬가지로 화면공유기능을 사용해서 미리 준비한 PPT(Power point의 줄임말)를 화면에 띄웁니다.

이때 온라인 법회의 장점 중 하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주로 부처님의 기본적인 교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면 법회라면 프린트를 준비해 가겠지만 온라인 법회는 앞서 말한 기능을 사용하여 제가 넘기는 PPT를 동시에 보면서 법문을 듣게 됩니다. 매주 자기의 스케줄 따라 법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법회에 오는 법우님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PPT를 화면에 띄워서 함께 보는 것이 프린트를 준비해 가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문 후에는 늘 생각하기 시간이 있는데, 그날의 법문 주제에 맞는 질문을 준비해 가면 그 질문을 보고 법우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각자 상황이 되는 만큼 카메라와 마이크를 선택적으로 켜고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에 모두 집중하며 법우들끼리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하며 이루어집니다.

다만 온라인이다 보니 가끔 말소리가 뚫리기도 하고 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원문을 독송하며 마무리는 하는데 특히 발원문을 읽을 때 가장 온라인의 단점이 부각됩니다. 말하는 순간과 듣는 순간에 시간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원문을 읽을 때 하나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각각의 속도로 읽게 되어 처음에는 많이 난감하였지만 그것마저도 환희롭게 생각하고 계속 발원문을 각자의 속도로 읽으며 법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대불련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한 영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즉문즉답’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ZOOM’을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30명이 넘는 각 대학교 법우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어서 평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상대가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상대의 반응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캠프에서는 대부분의 법우님들이 화면을 켜고 웃는 얼굴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제공\_불교신문

온라인 캠프의 장점은 캠프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해 음악을 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온라인 법회라 어수선 해지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쉬어갈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대면이었다면 공간을 벌려야 하고, 의자나 마실 것 등 준비할 것이 많은데 카메라만 있으면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법회의 큰 장점을 느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개강 온라인 법회에서는 처음으로 게임을 시도해 봤습니다.

마피아게임이라는 게임인데 시민, 마피아, 경찰, 의사가 나오는 게임으로 마피아를 찾아서 검거하는 게임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더 수월하고 심지어 재미있게 웃으며 게임을 해서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둥덕여대와 연합법회를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0명 정도의

사람을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이때는 일정 때문에 법회를 제 시간보다 좀더 늦게 들어온 법우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만약 온라인 법회가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법회 장소까지 찾아오느라 더 많은 시간을 늦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 온라인 법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온라인으로 더 효과적으로 법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대학생 포교 승가결사체인 ‘칠불회’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에 맞는 포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온라인 법회입니다. 현재는 SNS를 통해 활동하고 있지만 결국은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각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는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각 대학교 법사스님들께서 잠시 법회를 쉬시거나 미루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자 대학생불교연합회(약칭:대불련)나 종단에서도 온라인으로 법회를 하는 강좌를 열고 법사스님들이 온라인으로 법회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법회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사스님들께서도 온라인 법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을 통한 법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곧 온라인으로 통해 더 많은 활동들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법회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포교의 한 방법으로서 온라인이라는 장점을 살려 포교를 한다면, 보다 넓은 범위의 포교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카메라 하나로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카메라 하나로 어느 곳에 있든 바로 만날 수 있는 점을 포교에 적극 활용한다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법회는 ‘포교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힘겨운 이 시기에도 대학생 포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포교라는 원력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나가시는 각 처의 모든 스님들께, 또 외호해 주시는 종단과 많은 어른스님들께이 글을 통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선배스님들을 따라 저도 포교의 전선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부지런히 배워서 부끄럽지 않은 승가의 일원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바뀌어가는 세상 앞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부지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이러한 행과 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부처님의 가피에 늘 감사드립니다. 🌱

#### 세광 스님



- 동학사승가대학 졸업
- 동국대학교 재학 중
- 숙명여자대학교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 대학생 포교 승가결사체 ‘칠불회’ 회장

## 오백 분의 아라한, 그리고 별들이 들려준 이야기

진정 / 사교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 윤동주 “별 헤는 밤” 中 -

### # 4시 : 오백전으로 가는 길

새벽녘 오백전으로 향하는 길 위로  
새까만 밤하늘에 수놓인 찬란한 가을 별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전히 빛나 주는 저 별들에,  
여전히 밝혀 주는 저 맑은 가을 하늘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각 전각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지는 모습들이 꼭 저 별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들을 보고 있으면 운문의 도량에서 함께 하고 있  
는 대중들이 떠오릅니다.

### # 9월 20일 : 백일기도 입재식

가을 입방이 하루 지나 바로 입재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작년에 비해 많이 간소해진 입재식 이  
었지만, 준비해야 할 일들은 작년과 동일한지라 처음 맡는 큰  
기도에 앞서 긴장 반, 다짐 반으로 입방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방학 동안 남아 있던 대중의 배려로 일찍 입재식  
준비가 시작되었던지라, 사전의 걱정과는 다르게 매우 수월하  
게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학공사가 끝나자마자 전  
사부대중이 곳곳에서 맡은 일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입재식을 위해 오백전을 청소하고, 오백미, 과일과 떡, 과  
자 등의 공양물을 올리고, 범당에는 가지런히 좌복이 깔리고,  
멀리까지 기도소리 잘 들리라고 마이크를 점검하고, 입재식에  
오는 분들에게 드릴 떡과 과일, 그리고 함께 나눌 책들이 차



려집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희주스님으로부터 행자님들까지. 그리고 운문사의 든든한 거사님과 보살님들. 운문사 사부대중 어느 누구의 손 하나 안 닿은 곳 없이 모두의 힘에 의해 오백전 백일기도를 원만하게 입재하였습니다.

### # 1978년 2020년 : 운문사 오백전 백일기도 이야기

운문사의 오백전 백일기도는 희주스님께서 학인스님들을 위해 1978년 시작한 이래 올해로 42년 간 지속된 운문사의 가장 큰 기도 중 하나입니다. 오백나한님들은 부처님 당시의 오백 분의 깨달으신 분을 말합니다. 『아함경』·『법화경』 등에서 언급된 이 오백아라한은 부처님 입멸 후 제 1차 결집을 주도한 오백아라한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한은 범어 아라한阿羅漢(Arhat)의 줄임말로 초기불교에서는 수행자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자라는 뜻이며, 대승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서 석가에게서 불법을 지키고 대중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또다른 말로는 응공, 응당히 공양 받으실 분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권인 중국, 일본에서도 나한 신앙은 두루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1051년(문종 5)~1284년(충렬왕 10) 사이에 국가적으로 공식 나한재羅漢齋를 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도 오백전 백일기도는 외부 불자님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이번 입재식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 주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백나한의 위 신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 # ∞ - 헤아릴 수 없는 발원들

축원문을 읽다 보면 발원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절절합니다. 그러다보니 기도하는 매 순간들이 늘 조심스럽습니다. 오백전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는 하나의 울림이지만, 이번 백일 입재기도를 준비해 주신 모든 대중스님과 더불어 안팎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신도 분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염원 덕분인지 '제대성중'을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바람들이 저 하늘에 무한대로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되어 빛나는 듯합니다. 마치 제대성중諸大聖衆이 제대성중諸大星衆으로 나투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제대성중님들 덕분에 저는 황홀하게도 아름다운 별들을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찬탄하며 제대성중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두의 발원이 삼보의 은혜 속에서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다행히 백일이 끝나도록 아직 나의 청춘은 다하지 않기에,

성중님 한 분, 한 분. 발원 하나하나 그 모두를 가슴 속에 잘 새기며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

## 현행 『천수경』의 원류를 찾아서

정연상 / 사집과

###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천수경』의 성립 및 전래
  - 1) 『천수경』의 유통사
  - 2) 『천수경』의 변천요인
3. 가범달마 역본의 원본 『천수경』
  - 1) 원본 『천수경』의 주요 내용
  - 2) 원본 『천수경』의 정수, 구심九心
5. 나가는 글

####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글

『천수경』은 한국 사찰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다. 현재 한국의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 의식 및 재가 신자들의 신행 생활이 『천수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가수행자들의 수행을 돋는 방편으로서도 중요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출가 후 처음 접하는 경전이 『천수경』이며, 이를 매일 지송하면서 『천수경』 속 ‘발원’과 ‘귀의’, ‘참회’, 그리고 다라니 기도를 통해 세속적 욕망과 이기심을 벗어나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불교의 기본정신을 훈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천수경』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며, 독송용으로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현행 『천수경』과 달리,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국내 전래 당시의 『천수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천수경』의 원음을 찾아 역사 속 흐름을 거슬러 보고자 한다.

### 2. 『천수경』의 성립 및 전래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신앙과 관련된 천수다라니 및 그 신앙의궤를 전하고 있는 경전의 총칭’으로서의 소위 천수경류 경전은 기원전 인도에서 형성된 관세음보살 신앙<sup>1)</sup>에 바탕을 둔 체 A.D 2~3세기경 만들어진 밀교부 경전이다.

중국에 전래된 것은 기원후 7세기이며 중국 최초의 역본은 지통·역의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이며, 658년경 가범달마에 의해 『천수천안관세음보살치병합약경』 및 『천수천안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이, 그리고 이후로 보리유지, 금강지, 불공 및 또 다른 역경사들에 의해 수많은 천수경류 경전들이 번역되었고<sup>2)</sup>, 해당 경전만 총 18종에 달한다.

중국에서 번역된 위 경전들 중 우리나라에 최초 전래된 것은 가볍달마 역본의 『천수천안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이며 기록상으로는 671년 의상 스님이 중국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지은 『백화도량발원문』에 ‘십원육향’이 등장하며<sup>3)</sup> 이 외에도 『삼국유사』에서도 관련된 기록<sup>4)</sup>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천수경』은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 1) 현행 『천수경』의 유통사

현재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현행 『천수경』은 밀교 의례의 전승발전과 더불어 원본 경전의 일부에 다른 경전의 일부를 함께 편집하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천수경류 경전의 유통과 함께 신라 중기부터 행해진 천태종의 『관음참법』 시행과 아울러 고려 중기에는 중국 송나라 때의 승僧 지례(960~1028)에 의해 찬술된 『천수경』의 독송 규범서 『천수천안대비심주행법』에 의해 초기 『천수경』의 독송 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밀교 관련 경전들은 거의 대부분 원본에서 발췌하거나 다시 이를 편집해서 간행되었으나 조선 중기에 불교계에서 진언집과 의식집의 편집이 활발해지고 천수다라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독립된 경전으로 『천수경』이 다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81년 간행된 『고왕관세음천수다라니경』부터 시작하여 조선 말기 조동훈이 필사한 『천수경·불설고왕관세음경』과 1935년 『석문의범』, 1969년 통도사에서 간행된 『행자수지行者受持』까지 이어지게 된다.<sup>5)</sup>

### 2) 현행 『천수경』의 변천요인

주목할만한 점은 일반적인 경전의 경우, 본本에 따라 문장 구성의 차이, 단어의 변화, 문장의 생략과 침삭 등의 차이가 있는 반면<sup>6)</sup>, 현행 『천수경』은 원본과 비교해볼 때 그 구성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격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일까. 이에 조선 중기 이후 진언집 및 의식집 등의 편찬이 활발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본 『천수경』이 현행 『천수경』으로 변화하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작용하지 않았을지 추측해보았다. 이는 조선 시대가 건국 초기부터 배불정책을 펼쳤으며 조선 시대의 불교가 선 사상의 전통을 계승하였음에도 밀교부 경전이 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선사인 서산 대사 또한 불교의례서인 『운수단가사』를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중기, 당시의 조선은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겹쳐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다. 따라서 16~

1) 기원 전후에 성립된 경전으로 알려진 『법화삼매경』,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의 경전들 및 『능엄경』의 단편들 가운데서 관세음보살 신앙의 초기형태를 찾을 수 있다.

2) 정각, 『천수경 연구』, 도서출판 운주사, 1997, p.66

3) 의상,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我亦頂戴觀音大聖 十願六向 千手千眼 大慈大悲 悉皆同等 捨身受身 此界他方 隨所住處 如影隨形 恒聞說法 助陽真化”

4) 『삼국유사』, 제2권 문무왕 법민 조條, 문무왕의 아우 김인문이 당에서 옥에 갇혔을 때 신라에서는 인곡사를 짓고 관음도량을 개설했다.

5) 정각 위 책, 김병율, 「조선시대 관음신앙 관련 불서 간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김호성, 『천수경 이야기』, 민족사, 1996년

6) 최종남, 「梵·藏·돈황본 『금강경』 대조 연구」, 『인도철학』 no. 27, 인도철학회, 2009년

17세기에는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수륙재 의식이 빈번히 실행되었는데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에 빠져 있던 서민들을 종교적으로 위로한 것이 불교의 대중화, 민중화를 이룬 역사적 배경이었고 동시에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진언 다라니가 유행하는 계기였다고 본다<sup>7)</sup>.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존의 지배계층 혹은 지식인을 위한 불교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불교로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일반인들의 불교 의식과 수행 참여를 위한 의식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천수경』이 경전에서 의식집으로 변화하며 현행 『천수경』으로 변천된 것으로 보여진다.

### 3. 가볍달마 역본의 원본 『천수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상 대사에 의해 최초로 전래된 『천수경』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며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행 『천수경』의 모태인 가볍달마 역본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살펴봄으로써 천수경의 진의에 한 발 다가서 보자<sup>8)</sup>.

#### 1) 원본 『천수경』의 주요 내용

원본 『천수경』은 보타나가산 관세음보살의 궁

전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총지다라니를 설하시려 하자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대신 설법을 하는 내용이다.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여 육성취<sup>9)</sup>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화자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전반부에는 관세음보살이 직접 대비심다라니와 천수천안을 갖추게 된 연유, 다라니 독송법, 다라니 지송의 공덕 등을 설법한다. 후반부에서는 아난의 물음에 부처님께서 답하는 형식으로 다라니의 명칭과 관세음보살의 기원,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 42수주에 대한 설법이 담겨 있다.

무량역겁 전 관세음보살이 보살초지[환희지]였을 때, 당시 출세하신 천광왕정주여래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비심다라니를 설하셨고 관세음보살은 이를 듣고 바로 팔지[부동지]의 경지에 올라 언제나 다라니를 수지하게 되었다고 하며 관세음보살은 다라니를 수지코자 하는 중생을 위하여 다라니 독송법을 설한다. 우선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킨 후 ‘십원육향문’으로 발원하고,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며 오롯이 생각하고, 시방의 스승들에게 참회 후 다라니를 외우되 하룻밤에 5편을 독송할 것<sup>10)</sup>을 전한다. 이 밖에도 원본 『천수경』 속에는 다라니 독송 및 수지자의 공덕과 위신력, 과거 성불한 부처였으나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보살로 형상을 나투셨다는 관세음보살의 기원 등이 담겨 있다.

7) 남희숙, 「16~18세기 불교의식집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4, p. 143

8) 편의를 위해 가볍달마 역본의 『천수경』은 원본 『천수경』이라 약칭하겠다.

9) 경전의 첫 문장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형식. 신성취<sup>信成就</sup>·문성취<sup>聞成就</sup>·사성취<sup>時成就</sup>·주성취<sup>主成就</sup>·처성취<sup>處成就</sup>·중성취<sup>衆成就</sup>를 말한다. 예를 들어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봇다는 수행이 뛰어난 1,250 명의 비구들과 함께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에서, 여시如是는 신성취, 이문我聞은 문성취, 일시一時는 시성취, 불佛은 주성취, 재사위국기수급고독원在舍衛國祇樹給孤獨園은 처성취, 여대비구중천이백오십인구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는 중성취이다.

10) 지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다라니를 3편 외우거나, 혹은 마지막 구절을 3번 외움으로써 ‘3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조선 영·정조 때의 승려 팔관이 지은 『삼문직지』에 따르면, “3편을 외우는 것은, 첫째, 물든 인연을 멀하고자 하는 것이요, 둘째 식심識心에 장애 되는 바를 떨쳐버리기 위함이고, 셋째 법계를 넓혀 청정케 하는데 그 뜻이 이는 것이라 그리하여 정토의 뜻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한다. 정각, 『천수경 연구』, 도서출판 운주사, 1997, P. 227.

## 2) 원본『천수경』의 정수, 구심九心

대법천왕이 다라니의 형상을 말해주기를 청하자, 관세음보살이 답하는 소위 ‘구심九心’의 대목 이야말로, 원본『천수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며 우리가『천수경』을 독송할 때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 마음의 어느 부분에 점을 찍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대목이다. 경전 속 관세음보살의 원음을 그대로 옮겨 본다.

“크나큰 자비의 마음[大慈悲心]이며 치우침 없이 평등한 마음[平等心]이며 함이 없는 마음[無爲心]이며, 물遁 없는 청정한 마음[無染着心]이며 존재를 공으로 살피는 마음[空觀心]이며, 늘 공경하는 마음[恭敬心]이며 늘 낮추는 마음[卑下心]이며 어지러움이 없는 평화로운 마음[無雜亂心]이며 집착해 취하지 않는 마음[無見取心]이며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無上菩提心]이니, 이와 같은 마음이 곧 다라니의 모양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를 의지해서 수행할 것이로다.”

## 5. 나가는 글

『천수경』은 한국불교의 예불과 의식의 근간을 이루고, 수행의 방편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로 우리 민족에게 깊게 퍼진 관음신앙과 함께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 한『천수경』은 종단의 구분을 떠나 각 사찰 및 재가신자들의 ‘소의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천수경』에 대한 물음을 실마리로 인도에서『천수경』의 성립과 전래, 그리고 시대에 따른 유통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원본『천수경』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팔만대장경을 한 자로 줄이면 마음 심心이 된다고 했던가. 감사하게도 원본『천수경』을 살펴보

면서 현행『천수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일견一見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의 작업이 현행『천수경』을 거슬러 올라가 원본『천수경』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면, 다시 그 흐름을 돌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원본『천수경』이 현행『천수경』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지, 그 기저에 시대별 불교 위상의 변천과 당시 불교 사상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

### 〈참고 문헌〉

1. 정각,『천수경 연구』, 도서출판 운주사, 1997
2. 김호성,『천수경의 새로운 연구』, 민족사, 2006
3. 김호성,『천수경 이야기』, 민족사, 1996년
4. 김방울,「조선시대 관음신앙 관련 불서 간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대학원, 2016
5. 최종남,「梵·藏·돈황본『금강경』 대조 연구」,『인도철학』no. 27, 인도철학회, 2009년
6. 남희숙,「16~18세기 불교의식집의 간행과 불교 대중화」,『한국문화』34호,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4



## 풍성한 계절, 풍요로운 마음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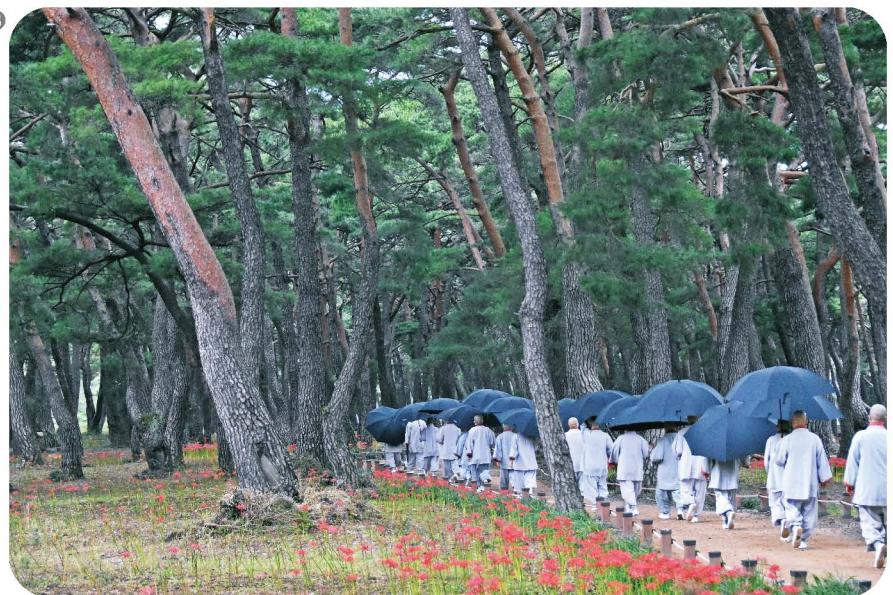
- ① 꽃보다 사십반
- ② 화엄반과 사교반. 우리는 제법 잘 어울려요
- ③ 울주스님께 예쁘게 송편 빚는 법을 배워봐요~
- ④ 가을을 만끽하는 대학원생 스님들~!
- ⑤ 엄마의 마음으로 올리는 사교반의 대중공양
- ⑥ 황금들녘을 걷는 여여한 수행자 사교반
- ⑦ 사십반 치문반 뭉치자!  
    다 함께 싱그러운 미소 ~!
- ⑧ 모두와 함께 포행하는 꽃무릇 길



6



7



8

## 코로나19를 통한 수행자로서의 나의 길

현오 / 사미니파

올해 운문사승가대학 치문반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입학식이 여러 차례 미뤄지다가 비非감염을 확진 받은 후 4월 21일이 되어서야 운문사로 들어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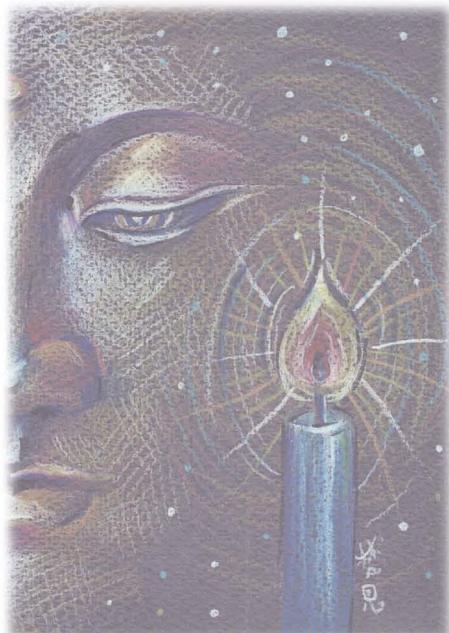
이전 사스나 메르스, 홍콩 독감 등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전염병이라고 해도 나와는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전반적인 생활이 바뀌면서 나의 생각 또한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학 전부터 외출이 제한되고, 승가대학 입학식이 늦어졌으며, ‘부처님오신 날’ 행사가 한 달 연기되며 사상 유래 없는 윤사월 초파일을 보내게 되었다.

선배스님들의 말에 따르면 작년만 해도 매주 하루, 쉬는 날에는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출타가 가능했고, 새벽마다 신심을 북돋아 주는 108배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병한 지금, 청정수행 도량인 운문사는 만약을 대비해서 외부인과 접촉을 줄이기 위하여 새벽예불에 이어 사시마지 를 올리고 있으며, 새벽예불에 다 함께 하던 108 배는 각자의 기도로 대체하게 되었다. 또한 불이문 바깥으로 기도나 울력, 대종을 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다.

또, 얼마 전에는 급성 대상포진을 앓아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고 주사와 약을 처방받아 운문사로 돌아왔는데 마침 당일, 한 도반스님이 열이 37.8 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



사교과 범견

였다. 도반스님과 나는 대중과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이불을 옮기고 각자 격리되어 매일 체온을 체크하며 지내게 되었다. 별일 없이 며칠 쉬고 다시 대중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격리된 상태로 다른 도반스님이 가져다 주는 도시락을 먹으며 죽음과 무상無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코로나19가 생겨난 원인에 대하여 수행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서야 코로나19는 우리들의 현실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 지식인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 뿐 아니라 지구를 훔쓴 질병은 모두 인간의 영역을 무한정 확장시키며 자연을 침범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있는 것인데, 인간의 이기심,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오염시킨 것이 코로나19 발병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수행자로서 어떻게 인간의 이기심을 평등심으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다 같이 행복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바른길이 ‘팔정도八正道’라고 설하셨다.

팔정도는 바르게 보기[正見], 바르게 생각하기[正思惟], 바르게 말하기[正語], 바르게 행동하기[正業], 바르게 생활하기[正命], 바르게 정진하기[正精進], 바르게 깨어 있기[正念], 바르게 정신 집중하기[正定]를 말한다.

팔정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운문사 내에서 소소하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매주 수요일을 ‘비닐 제로데이’로 정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닐 사용에 대한 각성과 소비를 줄이고 부득이 사용한 비닐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비닐 제로데이는 팔정도 가운데 지구환경을 바로 보는 정견正見,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실천은 바르게 행동하는 정업正業, 바르게 생활하기는 정명正命에 해당하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림 하는 것이 정념正念이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여 현실을 일궈나가는 것이 정정진正精進이다.

이렇듯 팔정도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며, 환경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먹고 자는 사소한 행위 하나도 합당한 일인지 알아차리기, 즉 필요한 것 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거나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것을 나의 수행의 길로 삼고자 한다.

또한 모든 중생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순기자연順其自然, 자리이타自利利他하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

## 부처를 가리는 집, 금당金堂에 앉아

혜광 / 사교파

몇 년 전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약 40초마다 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경문제로 암에 걸리는 물고기가 늘고 있고, 자구의 허파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 멀리 떠나신 지 2,564년, 이 오타악세에 진정 행복해보겠다며 머리를 깎고 강원에 들어온 지 3년차. 저는 지금 부처님의 집, 금당金堂에 살고 있습니다.

선방의 큰방은 선불장選佛場; 부처를 뽑아 가리는 곳이라 합니다. 운문사의 큰방에서는 비록 경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지만, 종종 제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인지, 저는 부처가 되어가는지 생각합니다.

한때 제게 부처란 큰 절 금빛 휘황찬란한 대웅전의 그분일 뿐이었습니다. 출가한 후에도 신심이 보잘것없다는 게 큰 고민이었는데, 지금도 예불시간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할 때면 언제쯤 침되게 지극해질지 마음 다하지 못하는 염불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자위한다면 점점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 시방세계역무비十方世界亦無比 세간 소유아진견世間所有我盡見 일체무유여불자一切無有如佛者’ 를 염송念佛할 때 마음이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온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고 이 고집 센 업식業識도 이제는 받들어 믿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도 못나고 모난 몸과 마음을 닦아 언젠가 부처를 이루리라 마음을 내곤 하는데, 그 길에 올바른 방향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을철 첫 수업 교수스님께서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말씀하시며 어떤 고통을 떠나 어떤 즐거움을 얻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고통을 떠나 어떤 즐거움을 얻으셨을까요?

언젠가 은사스님께서 그분은 탐진치貪瞋癡의 번뇌가 없는 분이라고 하셨을 때, 막연했던 그분이 제게 다가와 새겨졌습니다. 수행을 더해갈수록 끝없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뿌리가 버거워지곤 하는데, 번뇌를 남김없이 버리셨다니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그래서 제게 부처님은 번뇌의 고통을 영 영 버리시고 열반4德涅槃四德의 상常, 락樂, 아我, 정淨한 해탈의 즐거움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를 가리는 키질에서 알곡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문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시대와 장소, 근기根機가 다른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수행을 찾아야 하니까요.

요즘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마음 챙기기입니다. 일어나면서부터 명상 주제에 마음을 두려고 애를 쓰는데, 매일 반복하는 예불, 공양, 수업, 공덕행, 입선 등의 일상과 소소한 규율들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래된 나무집은 밭결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소리가 나오고, 큰방을 드나들 때는 합장 반배를 챙겨야 하며, 예불 시 온전히 집중해 염불해야 하고, 밭우공양에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순서와 방법으로 최소한의 소리만 내며 공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반스님들과 함께 하다보면 부딪히고 화합하는 가운데 무수히 일어나는 마음을 보게 되는데,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미세한 요동까지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알아차린다 해서 번뇌가 단번에 해결되거나 바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 받고 있음을 알고 그 뿐 리를 보고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한결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귀중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여유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해 주고, 설사 다시 악습惡習을 행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자책하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고, 참회하며 그로부터 벗어나리라 다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용암처럼 올라오는 망념妄念을 보아내기란 참 고된 일입니다. 번뇌의 화산에 속수무책일 때도 많고 이다지도 치졸하고 뻔뻔하고 속 좁은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니 여간 회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고백하건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매일 꽃길만 걷기 때문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업 중 ‘우리는 피안彼岸에 도달했는가’ 하는 질문에 교수스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이곳이 어디인지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이 순간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생 불퇴전不退轉의 끈기로 제 부처의 종자種子를 키워 언젠가는 열매를 맺으리라 다짐하며 이 가을, 부처님의 집에 앉아 부끄러운 글을 띠웁니다. 🌸

## 이제, 다시 태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법운 / 대교파

불교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였던 나에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10시간도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영정사진을 찾으러 어머니의 방에 들어선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평선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였다.

영정사진을 찾으러 들어간 어머니의 방은, 어제 아침 어머니께서 방을 나서던 모습 그대로 일부 자리며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다. 창 너머 햇살은 밝고 시계 소리는 흐르고… 금세라도 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반길 것 같은 모습에, 순간 내 입에서는 “다시는 태어나지 마세요!”라는 비명과 오열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인지 몰랐지만 이것만이 온전하고 유일한, 간절한 소망이 분명했기에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다.

3년이 지난 즈음, 친구에게 우연히 ‘그때 기도’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불자였던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이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뭐라고?! 부처님이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아니 그전에, 부처님이 안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진짜로?’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렵고 기뻤다. 부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어머니를 위한, 어느새 나의 것이 되어버린 간절한 기도가 그저 입에서 제멋대로 튀어나온 허무맹랑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임을 알게 된 기쁨!

처음 만난 자리에서 출가를 허락해 주신 은사스님으로부터의 왜 출가하려는지 물음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될 거예요.”라고 대답하자, 웃으셨다. 출가한 지 석 달이 지난 즈음, 철없이 행복하기만 한 행자에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행자님, 대승 불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하지 않아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은 모두 다시 돌아오세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셨잖아요.”

놀랐다. 진짜 놀랐다!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모두 이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 계시다는 사실에 놀랐다. ‘왜?’라는 자문에 곧 자답할 수는 있었지만, 모두 머릿속의 일이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원은 중생의 경지이고, 깨달은 불보살님의 경지는 중생과 사바

세계도 불국토가 되니까……? 아마도 그렇겠지?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보살님의 경지가 아니니까 위선 부리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해도 되지 않을까?’

대승과 소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나와 부처님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내 안에 계시던 부처님은 이제 선 너머 보이지만 닿지는 않는 평행선으로 변했다. 그러나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어느 날 “행자님, 행자님은 자비가 없어요.”라는 은사 스님의 한 말씀에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자비가 곧 내 문제가 되었다.

자비, 그것은 글이나 말, 생각 속에나 있는 것이지 실재를 인식한 적이 없었고, 자비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비 찾기의 첫 실마리는, 출가하자 곧 은사스님께서 대웅전 불단의 후불탱화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었다. “부처님의 협시보살脇侍菩薩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지혜는 문수보살님의 연꽃 봉오리와 같아서 직접 드러나지 않고 보현보살님의 활짝 편 연꽃처럼 자비로 드러납니다.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어서,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예요.”

자비는 지혜의 드러남이니 먼저 지혜-부처님 법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공부는 지식을 쌓듯 이해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었다. 알지 못하니 행도 변하지 않았다. 대승의 문이자 불도를 이루는 유일한 문이라는 발보리심-자비의 문을 부처님, 노스님, 스승님께서 보여 주고 알려 주셨지만, 활짝 열린 문 안으로 길을 밝혀 걸어가는 건 오롯이 내 몫이었다.

자비와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지만 둘은 늘 다른 문제였다. 아니, 일체 중생을 생각하는 불보살님의 자비와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지극히 사적인 욕심은 다르다기보다 정반대의 마음처럼 보였다. 그렇게 일체 중생의 세계는 아득히 먼, 깨달은 이의 우주처럼 보였는데, 세상 모두가 내 어머니 아니었던 이가 없다는 자비관을 받아들이자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존재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과 녹아들었다. 나만, 나부터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두가 성불하니 알아서 각자 성불합시다.’가 아니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서 가요, 함께 가요!’ 하는 마음, 나와 어머니가 다르지 않은 마음…….

『농엄경』 제6권 가운데,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하였으나 먼저 남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발심이라 하였다. 어떻게 제도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이를 제도할 수 있을까?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만약 먼저 깨닫고 나중에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낸다면 이는 생멸심이니 끝내 자신도 제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난존자의 발보리심이 곧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불합시다!”





##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그리고 ‘울림’

무공 / 사집과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던 4월의 어느 날, 금당에 모여 있던 도반들의 낯빛은 하나같이 당장 비라도 쏟아낼 먹구름마냥 어두웠다. 코로나의 여파로 개학일 연기가 연일 지속되자 다들 답답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 될지 모르는 개학을 앞두고 청풍료로 다시 이사를 했다. 이사를 마친 다음날, 율주스님께서 청풍료에 오셨다. 스님의 손에는 2권의 책이 들려 있었다.

우리의 낯빛을 찬찬히 살펴보던 윤주스님께서는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제야 나는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새삼 깨달았다. 윤주 스님은 마치 화두를 던지듯 방학동안 읽어보라는 말씀과 함께 가져오신 책을 우리에게 건네셨다.

그렇게 받아든 법정 스님의 『눈길』을 읽으면 감명 깊었던 글들을 나눠 보고자 한다.

법정 스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된다. 법정 스님이 집필하신 『무소유』 서적이 많은 대

중들의 인기를 받은 이유도 있겠지만 법정 스님 본인의 삶 자체가 무소유였기 때문일 것이다. 세속 명리와 번잡함을 멀리했던 법정 스님은 홀로 펠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청빈을 실천하다 세수 78세, 법립 55세에 원적에 들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했던 우리 시대 큰 스승 법정 스님은 열반하신 이후 다비식 외에 일체의 장례의례를 거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수필 제목처럼 마지막까지 무소유無所有를 몸소 실천하셨다.

과연 무소유란 무엇일까? 법정 스님의 일화 중, 오래 전 외환위기를 맞아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제자들에게 들려 주신 이야기가 있다.

찢어지게 가난한 한 선비가 저녁마다 향을 사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 결같이 천지신명에게 빌었다. 그러기를 여러 달, 옥황상제께서 그 정성에 마음이 흔들려 사신에게 저 선비가 무엇을 바라는지 듣고 오라고 물으셨다.

소원을 일러보라는 사신의 느닷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하던 선비는 소원이랄 것도 없고, 그저 몸이나 가리고 제때 밥걱정하지 않고 산천을 누비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옥황상제 사신은 “아니, 그것은 하늘나라 신선이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거늘 어찌 그대가 탐하는가. 부자가 되거나 귀해지기를 바란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참으로 들어주기 어렵네.”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께서 이 일화를 들려 준 깨닭은 소욕지족少欲知足을 말씀해 주시려 한 것이다.

적은 것에 기꺼워하기란 입에 올리기는 그럴싸해도 막상 하려고 들면 부자 되기보다 더 어렵다. 그토록 맞아들이기 어려운 ‘적은 것에 기꺼워하며 누리는 삶’을 외환위기가 찾아와 적은 것에도 기꺼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 욕심을 내려놓고 맑고 담백하게 살리는 말씀이었던 것이다.

나는 무소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떠올려보게 되었고, 위기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기회를 맞이하듯 코로나라는 위기도 소욕지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코로나 때문에 다시 화두가 된 일화가 있다.

법정 스님께서 프랑스 한인과 현지인들을 위해 1933년에 개원한 파리의 길상사 이야기다.

파리에 자리한 유일한 한국 사찰인 길상사 안에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파리에 가실 때면 머물던 작고 소박한 공간인 ‘소림헌’이 자리하고 있다.

소림헌이 탄생한 일화도 재미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고 했던가. 법정 스님이 파리의

유학생들을 위해 법문을 하시고 난 뒤 기거할만한 장소가 없었던 시절, 유학생들이 법정 스님을 위해 만든 공간이 소림원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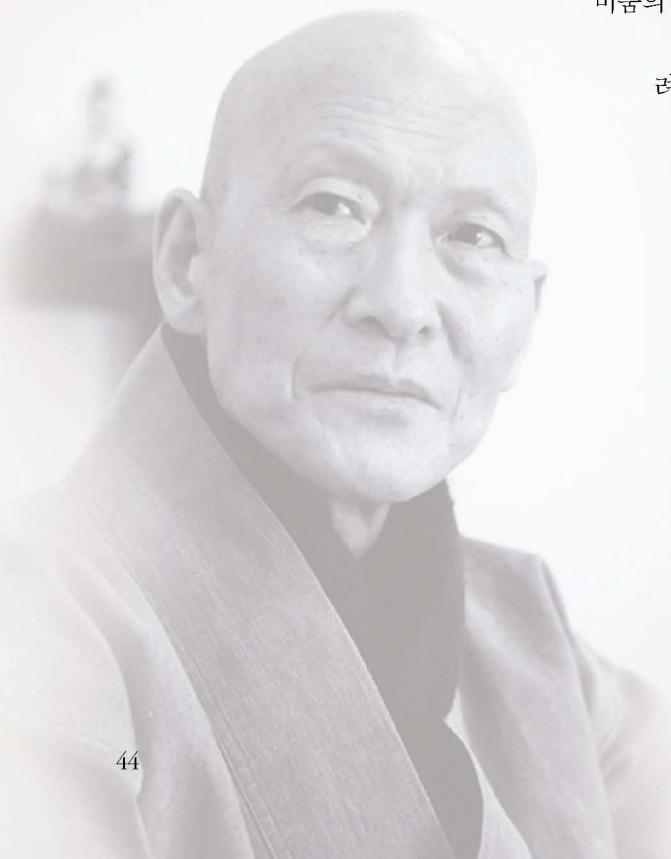
법정 스님에게 소림원이란 공간은 참으로 뜻 깊은 곳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의 자취가 남아 있는 뜻 깊은 공간인 만큼 파리 길상사의 주지이신 혜원 스님은 다시 법정 스님을 다시 모신다는 마음으로 소림현의 정비와 개축을 불사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때문에 파리 길상사도 포교와 선행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고, 소림현 복원 불사가 멈춘 상태가 연일 지속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태를 누구보다 아쉬워했던 불자이자 미술작가인 김진아 작가는 불사를 멈춘 소림현을 둘러보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제행무상의 의미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 덕분에 소림현은 미술작품들을 통해 불교와 선의 세계를 바탕으로 법정 스님의 생전 가르침처럼 채우기보다는 다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파리 길상사를 창건한 법정 스님이 전하는 멈춤과  
비움의 가르침.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코로나로 인해 변해가는 세상을 뒤덮은 ‘멈춤’이 갖는 의미 즉, 나와 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맞은 것이라는 생각이 듈다.



네 하루하루가 너를 이룬다. 그리고 멀지 않아 한 가정을, 자봉 밑의 온도를 이루고, 그 온도는 이웃을 번져 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있음은 절대이다. 없어도 그만이 아니란 말이다. 누이야, 이 살벌하고 어두운 세상이 그 청청한 네 아름다움에 힘입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부디 슬기로워지거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의 청정한 아름다움에 힘입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슬기로워지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하고 어수선해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다.



꽃을 보라. 누구를 닮지도 않았고, 남이 지니고 있지 않은 보물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 법정 스님의 과거 법문 내용 중 -

법정 스님이 떠나신 지 어느덧 열 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의 맑고 향기로움은 어디쯤 있을까? 나에게, 또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



##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우리들, 우리의 원력으로 열어가는 미래

여목 / 대교파(교회부장)



2020년의 시작을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한 새해, 청도는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 확산지가 되었고 부산, 대구, 경산 등 운문사를 둘러싼 지역이 모두 큰 위기와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운문사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산문을 폐쇄하고 학인스님들의 입학식이 연기되었으며, 개학 후에는 외출이 불가능해졌다. 외출할 경우 코로나 검사는 필수가 되었다. 스님들의 기도시간이 새벽과 저녁으로 제한되었으며, 신도님들이 많이 다녀가는 시간에는 생활하는 공간을 제외한 도량 내 출입을 자제하면서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대면이 불가능해졌다.

초파일, 동문회 행사, 각종 기도 입재와 회향 모두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바라고 바라는 운문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마저 취소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대자원의 상좌 어린이들과 학인 은사스님들과 함께하는 법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대중스님들은 모두 개인위생과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약사여래기도를 하며 우리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조건 안전만을 강조하며 종식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지금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먼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자, 매주 온라인 강연을 시청하면서 전 세계를 위기로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가속화 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대량생산, 과잉소비, 도시화, 세계화를 만들어냈고 이런 이유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들의 연결고리가 긴밀해져서 작은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고 인류를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의지적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왔음을 이야기했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업에 대한 과보 속에 두려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 원력을 세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위한 실천적 행을 선택할 것인가?

스스로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일갈을 가하듯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고 우리는 스스로 외부의 힘에 밀리며 살기 위해 또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종교모임을 통해 확산되어 지역사회를 마비시켰고 종교계도 위기를 맞이했다. ‘인류의 변화를 이야기 하는 시점에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종교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고민이 무르익을 즐 우리는 다행히 법륜 스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바뀌는 것 같지만 이미 사회는 변화하고 있었다. 어떤 변화이던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갖고 있다. 변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 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잘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를 사업으로 본다면 사양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불교가 빠르게 대중으로 확산될 것이나 정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커지려면 대중의 요구를 담아야 하고 대중의 요구를 담으려면 대중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외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정법으로 가지 못하는 위협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명 예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브라만 문명이 붕괴하는 혼란의 시대 혼들림 없는 길을 찾으신 분이 부처님이시기에 2600년 전 봇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래된 새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열어 가느냐에 따라 출구(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종교로서의 불교는 위기이고 수행으로서의 불교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행복의 척도가 바뀌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수행 공동체 역시 물질적 소비와 불사를 줄이고 자급자족하며 끊임없이 대중에 회향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며 누리고 있었지만 당장 대면이 불가능한 언컨택트 사회는 괜히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것 같고 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불편하고 꺼려진다. 하지만 당장에 어린이 법회와 수련회를 할 수 없게 된 윤문사 교회부 스님들에게 비대면 법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시단법인 동련과 함께 온라인 법회 운영을 위한 지도자 연수를 열고 유튜브 호거산 운문 TV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다.

연수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학인스님들에게 전자기기 사용은 시간과 공간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 학인들이 많았고, 사용한 지 오래된 메일계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이 불가한 핸드폰이 필요했다.



또, 모두가 동시에 와이파이를 켜고 동시 접속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외부강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와야 했다.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교육을 위해 사중의 노트북, 태블릿, 소임자들을 위한 핸드폰을 모두 다 동원하여 개개인에게 나눠 주고 개인 이메일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며, 주지스님의 결단으로 강당에 1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승가대학은 철저하게 컨택트 사회였음을 절감할 수 있었다. 외부 강사님들은 사중의 이런 노력이 놀랍다며 “기꺼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오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시작되었다. 1박2일의 연수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 취침 전까지 이어졌고 매우 놀라우리만큼 적극적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동련에서 발간되는 연꽃지를 활용한 온라인 법회, 줌을 활용한 명상과 체험놀이 등을 함께 하며 어느새 언컨택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하며 신기해하고 있었다.

줌 프로그램 사용과 활용방법을 알려 주신 홍영일 선생님은 하나를 알려 주면 열 개로 활용해 피드백하는 스님들에게 감동을 했다. 온라인 법회와 강의에 대한 마음의 거부감과 어색함이 조금 사라지게 되었다.

연수 이후 교화부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코로나로 운문사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운문사의 자연환경과 스님들의 생활을 공유하고 어린이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책을 소개하고, 직접 짧은 명상을 진행하는 등 있는 자료는 활용하고 조금씩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다. 학인스님들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채워간다.

이 외에도 운문사를 찾은 신도님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피붓다 마스크 스티커”를 제작해 직접 맞이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담아 희망하였다.

사회는 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불교계도 화상회의, 온라인 법회, 집에서의 개인 수행과 온라인 접점 시스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갑자기 찾아온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하며 며밀려 시작된 고민이지만 이 시간을 또다른 우리의 삶에 기회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한 출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정성어린 사유와 노력의 시작이었다.

운문사는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하고 있고 출가하고 스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학인들이 있는 곳이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치유는 나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이라는 가치 전환과 소욕, 절제의 미덕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해결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을 들이켜 본다면 승가대학 안에서부터 소욕지족의 삶과 이타성의 발현, 고통의 현장을 보살필 수 있는 심성과 구체적 행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문사 도량이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살펴서 알찬 컨텐츠로 개발되어 온라인상에도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



## 『허공에는 자취가 남지 않아요』를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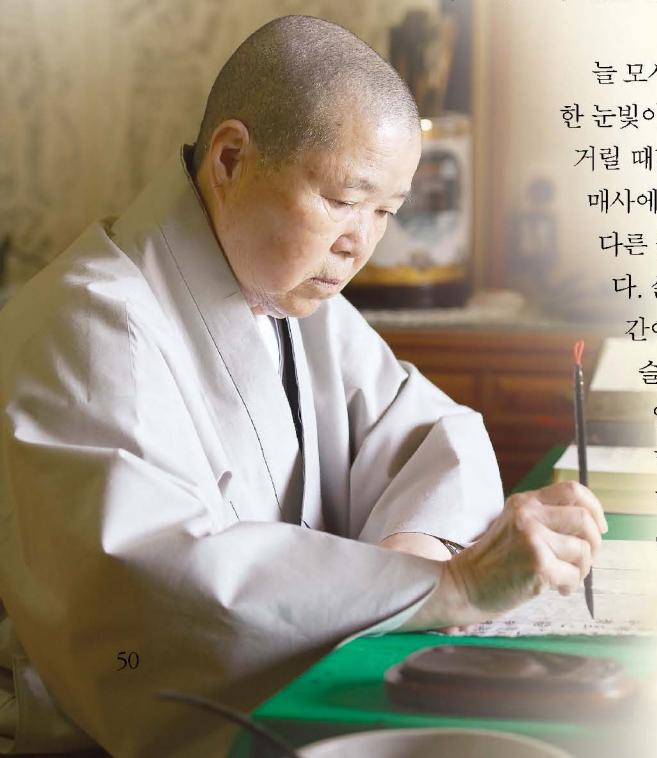
영운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이황 선생의 도산십이곡 가운데 아홉 번째 계송을 특별히 좋아한다. 옛 성인도 날 뜻 보고 나도 옛 성인을 뜻 보지만, 옛 성인께서 가시던 길이 앞에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뵈을 수 없는 성인의 가신 길도 그리워하며 따라가는데 하물며 동시대 한 공간에 함께 하는 스승을 따르려는 마음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길을 알려 주는 고구정녕한 말씀들은 각 자가 서 있는 길 앞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한 권의 책은 『허공에는 자취가 남지 않아요』 법계 명성 스님의 인품이 빛어내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담긴 수채화 같이 작고도 얇은 책이다. 마치 한 편의 동화를 보듯, 이야기 편편이 작고 청량한 자취를 모아 놓은 관찰자 시점의 일화 모음집이다. 책 속에는 지금 나의 삶에 조도助道가 되는 말씀들이 무겁지 않게 전개된다. 평범 속의 비범이 이런 것이리라.

오늘의 운문사를 전국 최대 규모의 승가대학으로 발전시키고 한국 비구니 위상 정립과 세계 여성 불교 발전의 지침석을 다지시는 분! 한 도량에서 오십년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매일 똑

같은 일상, 새벽예불에서 시작하여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한 번도 두 번을 살지 않는 삶! 그런 이야기가 소박하게 담겨져 있다.



늘 모시고 살며 강의를 듣지만 일상의 삶은 둔탁하여, 한 말씀 한 눈빛이 떨어진 그 자리의 깊은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머뭇 거릴 때면 후학의 둔함이 부끄러워 죄송스러운 미움이 앞선다. 매사에 진실하게 사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인 것 특별히 다른 높고 고귀한 무엇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그르친 것이다. 삶 속에서 하루를 열며 한 순간이라도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던가. 삶의 속성은 덤덤하고 때로 기쁘고 때로 슬프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한 일회성 위에 놓인 유일무이의 특별한 순간들인 것이다. 익숙한 삶 속에 한 번도 똑같은 순간을 산 적이 없이 유유자적하신 큰스님의 모습이 글 줄 속에 배회한다. 늘 만나면서도 처음인 것처럼 말이다.

평생 교육자다운 언행으로 단정하시고 평온하시며 거친 말씀 한 번이 없으셨던 스님은 단발머리 여학생 때부터 부지런하고 타고난 미적 감각을 지니고 정리 정돈을 잘하셨다. 여고시절 ‘새가 날아간 흔적’을 그려내라는 미술 선생님의 선적禪的 주제에 최상의 배틀을 던진다. 아무 것도 그리지 않은 허공을 담은 ‘하얀 백지’를 제출한 것이다.

“선생님,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나뭇잎이 떨어져도 허공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 텅 빈 허공,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만법이 다시 일심으로 돌아가는 둘이 아닌 소식을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여학교 시절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된 사유를 통하여 자신의 숙업을 감지하고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수록 소녀는 더욱 조신하게 행동하였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된 것이다. 여러 생을 닦은 보살의 원력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스님은 당신의 수업시간에 늦거나 빠지는 날이 없으셨다. 교육자적 자세, 배우고 가르치는 자의 자기 원칙에 철저하셨다. 행여 학인들이 아파서 함께 수업에 동참하지 못하면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아픈 건 아픈 대로 두고 나와서 공부해요.’, ‘시자의 시자’를 사시며 한없이 지켜보고 기다려 주시는 따뜻함이 있으셨다.

‘중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예요. 참을 인자忍字 3개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하심下心하고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대중생활 속에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운문인, 우리 모두는 서로 도에 이르게 해 주는 도반들이 다. 위로는 명성 회주스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아래로 일진 윤주스님과 진광 학장스님, 운산 주지스님 영덕 학감스님 여러 어른스님을 바라보며 상중하좌가 함께 훌러가는 승가공동체에 몸을 담고 사는 삶! 오늘 이 자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 제불보살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스님의 평생 좌우명은 ‘즉사이진即事而眞’ 매사에 진실한데 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정성을 다 하라는 것이 요점이다. 일마다 불공 올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무슨 부끄러움이 남으랴. 번뇌 없는 마음 청정한 삶을 근간으로 날 적마다 함께하는 아집과 법집을 철저하게 녹여 없앨 때, 이 길에 선 의미를 제대로 간파하는 것이리라.

오늘도 스님의 창 앞에는 둥쪽 하늘에 뜬 셋별이 구십 노장인 명성明星을 그윽이 지켜본다. 스님의 법체청안을 기원하며 더 오래 스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



## 귀를 기울이다

귀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침묵을 익힌다는 말이다.

침묵은 자기 내면의 바다이다. 진실한 말은 내면의 바다에서 자란다.

자신만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남의 말만 열심히 흉내내는 오늘의 우리는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은 바깥 것을 매개로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소리를 깨우는 일이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시각과 귀로 듣는 청각을 통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보고 듣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관계 형성 및 정보 습득·교환 등의 활동을 한다. 이 가운데 특히 청각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좋고 싫음을 느끼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으로 좋은 음악 소리, 칭찬하는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싸우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이미 알고 있듯이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많은 말들이 오가고 큰 소리가 나더라도 그 무엇도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단순히 항상 열려 있는 귀로 흘러 들어오는 ‘들음’이 아니다. 귀를 기울이는, 즉, 주의를 집중하여 성심껏 잘 듣는 것을 말한다.

요즘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무력함과 절망, 외로움과 고립은 자살의 강력한 동기이며, 고령화에 따른 소외감과 높은 자살률 또한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상대의 감정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다 살릴 수 있다.”

경찰대 위기협상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종화 교수와 치유활동가들은 말하고 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진정성이 깃든 마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의 눈빛은 건성으로 듣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을 들어주는 것은 상대와 공감하는 것으로 행복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고 상대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간접 경험으로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상대로부터 배울 기회를 갖는 것이고,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며, 나의 집착을 줄여 나를 유연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들으며 다른 관점에서의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말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나하고 다를지도 반박하거나 말을 끊지 않고 들음으로써 오히려 ‘저렇게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며 이해하는 것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다행 없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갖는 길이다.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화자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어 반 이상은 해결되거나 치유되기도 한다. 미하엘 엔데의 책 『모모』의 주인공 모모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모를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말하기가 서툴러 속내를 꺼내기까지 두 시간이 걸리는 사람의 말을 모모는 기꺼이 기다릴 줄 안다. 오직 상대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적을 만들게 한다.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심오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귀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침묵을 익힌다는 말이다.

침묵은 자기 내면의 바다이다. 진실한 말은 내면의 바다에서 자란다.

자신만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남의 말만 열심히 흡내내는 오늘의 우리는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은 바깥 것을 매개로 자기 안에 잡들어 있는 소리를 깨우는 일이다.

- 법정 스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中에서 -

『대불정여래밀인수중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에서 듣는 성품이 공空함을 비추어보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했듯이, 집중하여 잘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초월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며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고민과 의문점을 들어주시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다. 부처님이야말로, 당시 최고의 카운슬러가 아니셨을까?

이청득심以聽得心, 귀를 기울여 들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 논어論語 中에서 -

말을 잘 하는 것은 어렵지만, 말을 잘 듣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이다. 상대의 말에 반문하지 않고 우선 들어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에서 행복한 삶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아닌가 한다. ♪

## 운문소식



▲ 제42회 오백나한 백일기도 입재



▲ 추석 다례제



▲ 봉사활동



▲ 치문반 첫 논강



▲ 조사전 다례제

- 9월 19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0일 오백전에서 제42회 오백나한 100일기도 입재를 하였습니다.
- 9월 30일 후원에서 추석 송편빚기 대중 운력이 있었습니다.
- 10월 1일 추석날, 대웅보전에서 새벽마지 후 비로전에서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학인스님들은 추석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10월 9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가을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10월 10일 범공양이 있었습니다.
- 10월 14일 온 대중이 모여서 태풍이 지나간 후 바람결에 날아온 쓰레기들을 줍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치문반 첫 논강이 있었습니다. 윤주스님을 비롯하여 학감스님과 치문반 담임스님, 대학원생 스님들 그리고 각 반의 대표 스님들이 함께 모여 논강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10월 15일 「엄마의 마음 같이」라는 주제 아래, 사교반 스님들의 떡볶이와 다미채 꼬지, 와플 대중공양이 있었습니다. 정성어린 맛있는 음식은 대중스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였습니다.
- 10월 16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화엄반 탄연 스님, 사교반 범웅 스님, 사집반 정연 스님, 성안 스님, 치문반 천진 스님)
- 10월 17일 전 대중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비용은 윤주스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 10월 25일 조사전에서 구중재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 10월 26일 가을휴강으로 8박 9일간 사교반 스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반 스님 ~11월 3일 들이 출타를 다녀왔습니다.
- 11월 12일 김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운문사 대중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 13일 담궜습니다.
- 11월 20일 저녁 예불 후 윤주스님을 단주로 대중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8일 가을철 종강을 하고, 가을철 마지막 자자가 있습니다.

### 도와주신 분

- 불다선원 법등(김인태)    • 정해옥    • 하옥희    • 남해 수미정사
- 심승자    • 이정숙    • 최희영    • 배종옥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포대화상



운문사 서점 왼쪽 벽을 보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넉넉한 웃음을 짓고 있는 포대화상을 볼 수 있다. 뚱뚱한 몸집에 얼굴은 항상 웃는 모습이었으며, 배는 풍선처럼 늘어져 괴상한 모습으로 지팡이 끝에다 커다란 자루를 들려 메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포대화상이라고 불렀다. 포대화상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사람이 포대화상에게 물었다.

“스님! 우리는 스님이 매우 높은 깨달음에 도달하신 훌륭한 스님이라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귀중한 시간을 아이들과 노는 데만 허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스님께서 선에 통달하셨다면 저희들에게 선의 진수를 보여 주십시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포대화상은 자신의 포대를 땅바닥에다 쿵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다! 이것이 선의 진수이다! 이것이 내가 보여 주고자 하는 전부이다. 내가 짐을 내려놓았듯이 그대들도 자신의 짐을 벗도록 하라.”

그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포대를 후다닥 걸어지고는 발길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일이다. 그러나 나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짐이 나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은 단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되어 버렸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번뇌망상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 무거운 짐들을 훌훌 벗어 버리면 무애자재한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1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21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모집 인원	사미니과 ○○명
제출 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집 기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형 방법	시험, 면접
예비소집일	2021년 1월 31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형 일시	2021년 2월 1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모집 대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1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 인원	○○명
제출 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 ·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증명사진 2매(3×4)
모집 기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전형 방법	서류심사, 면접
준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형 일시	2021년 2월 1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윤주 일진 · 주지 운산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53호·2020년 11월 26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편집장·범성·편집위원·범웅, 우송, 협오·사진·편집부·표지사진·범성(독서 삼매경) / 삽화·선아, 범건, 협밀,  
진하우·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